PORTFOLIO

RECORD DIGGER

Record Dig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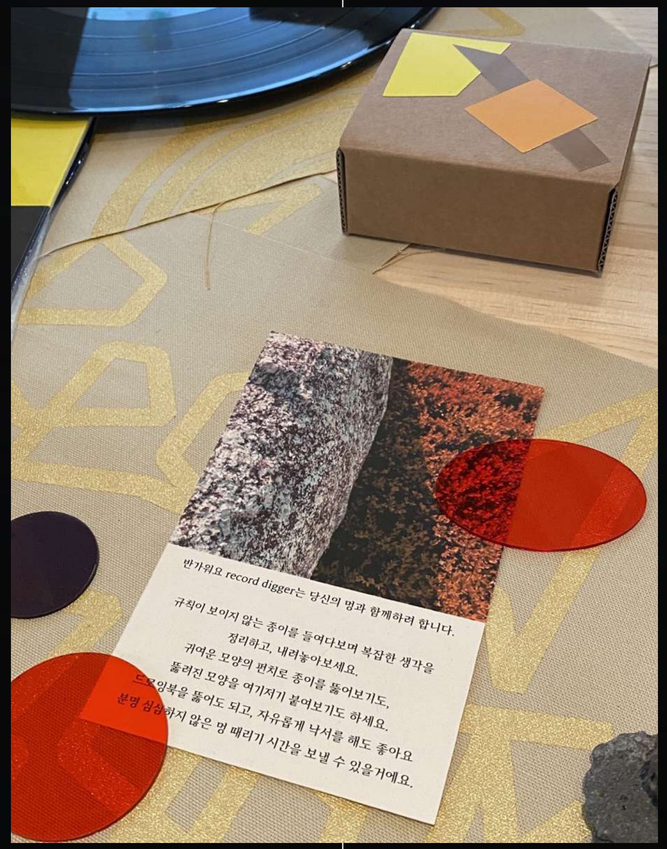
2021. 03 – 10.
personal work
pack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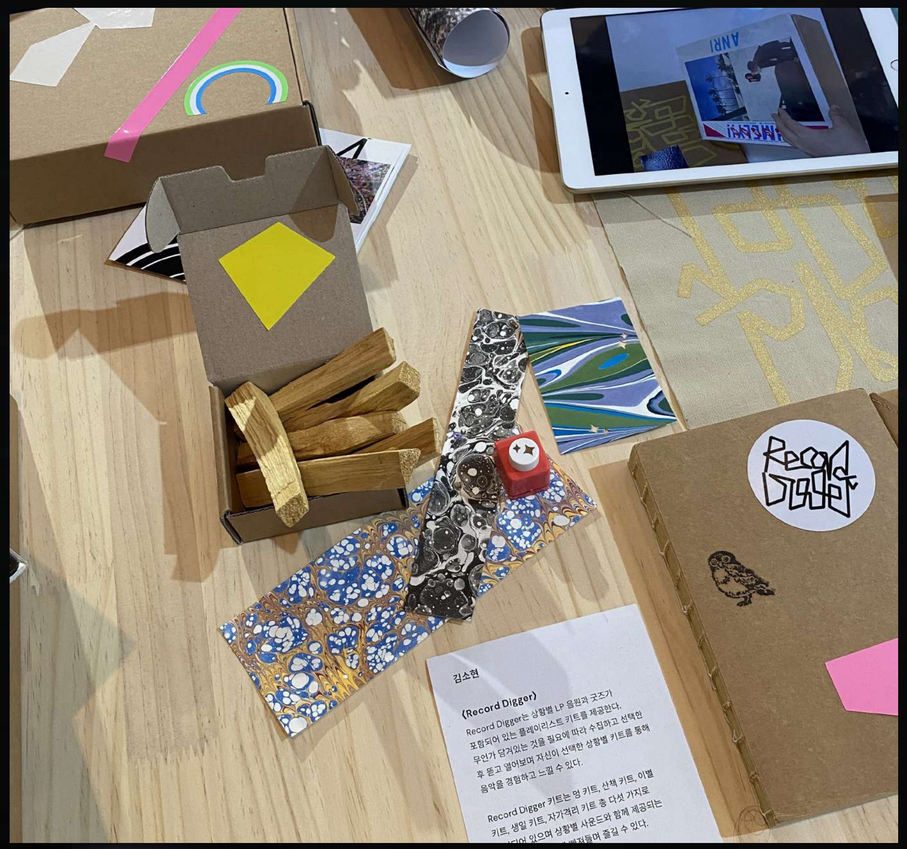
Record Digger는 상황별 LP 음원과 굿즈가 포함되어 있는 플레이리스트 키트를 제공한다.
무언가 담겨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 수집하고 선택한 후 뜯고 열어보며 자신이 선택한 상황별 키트를 통해 음악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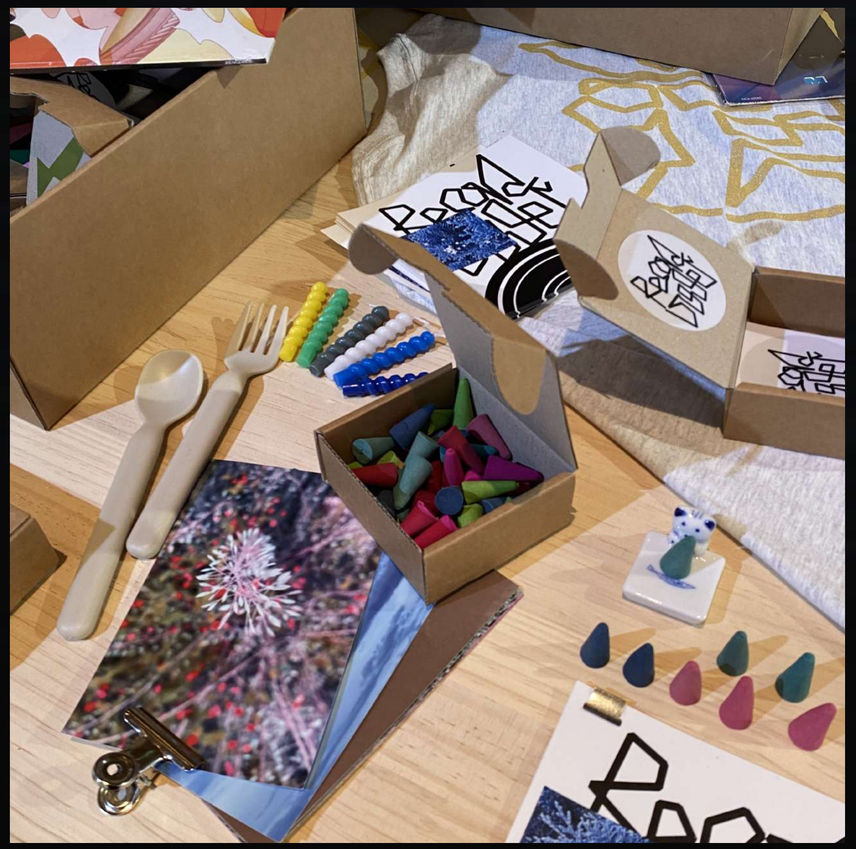
멍 키트, 산책 키트, 이별 키트, 생일 키트, 자가격리 키트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별 사운드와 함께 제공되는 굿즈를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다.

Tatsuro
Record Digger

ANRI
Tatsuro


반가워요 record digger는 당신의 멈과 함께하려 합니다.
규칙이 보이지 않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내려놓아보세요.
귀여운 모양의 펀처로 종이를 뚫어보기도,
뚫려진 모양을 여기저기 붙여보기도 하세요.
스크랩북을 뚫어도 되고, 자유롭게 낙서를 해도 좋아요
분명 심심하지 않은 멈 때리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거에요.


김소현
《Record Digger》
Record Digger는 상황별 LP 음원과 굿즈가
포함되어 있는 플레이리스트 키트를 제공한다.
무언가 담겨있는 것을 원요에 따라 수집하고 선택한
후 튿고 열어보며 자신이 선택한 상황별 키트를 통해
음악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Record Digger 키트는 멈 키트, 산책 키트, 이별
키트, 생일 키트, 자기격려 키트 총 다섯 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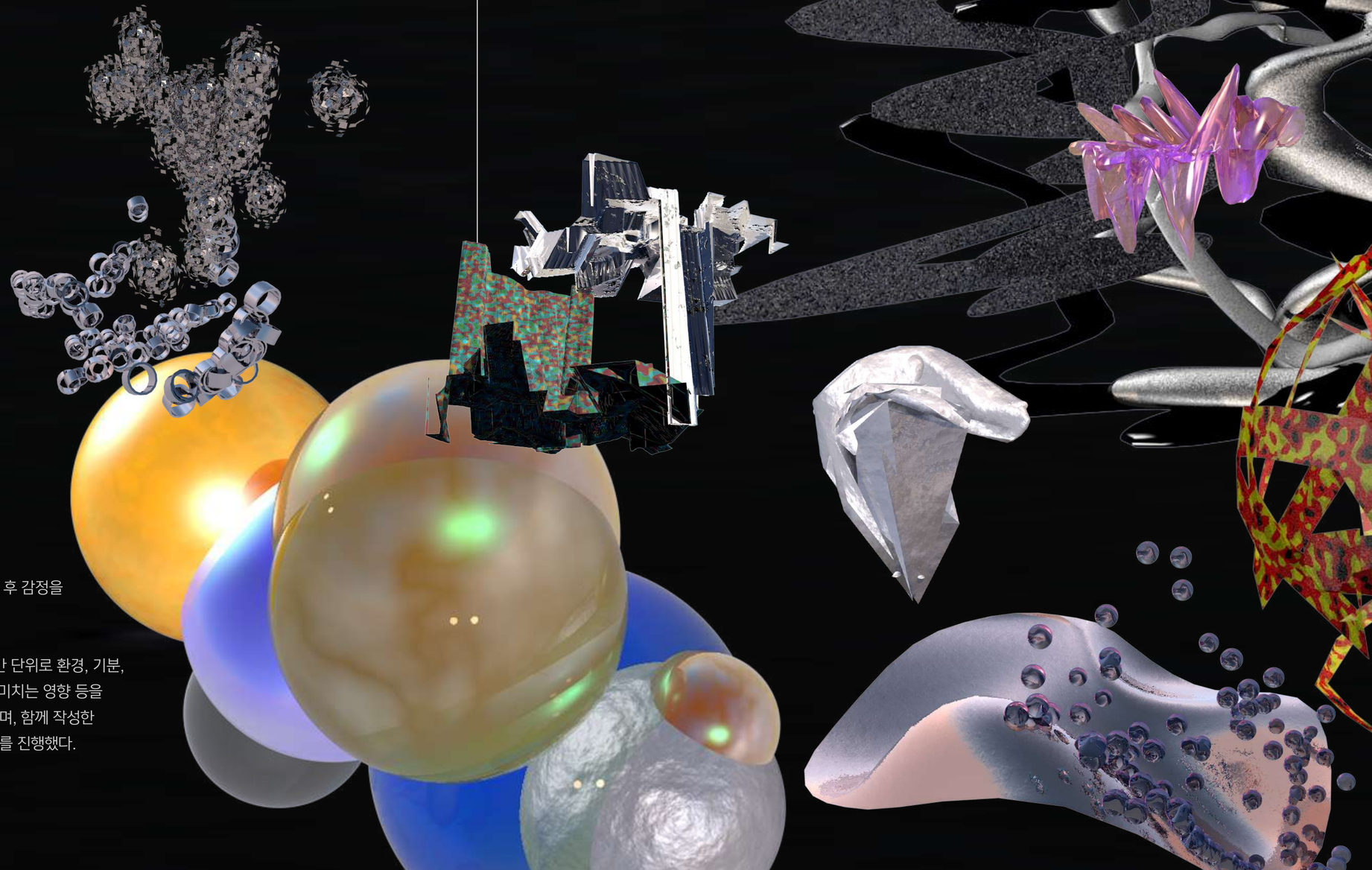
일상로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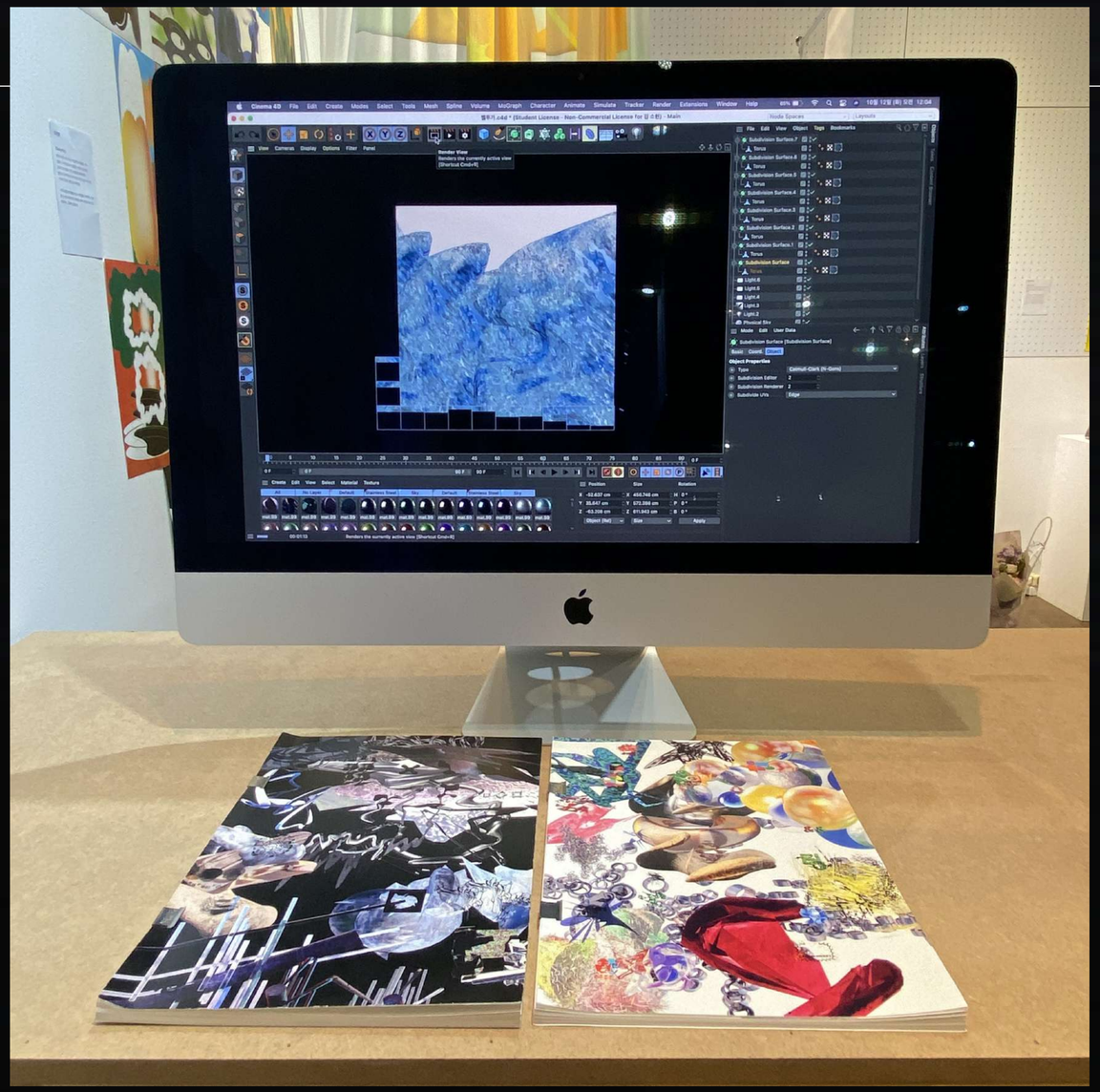
일상로고 프로젝트

2021. 03 – 10.
personal work
poster/video/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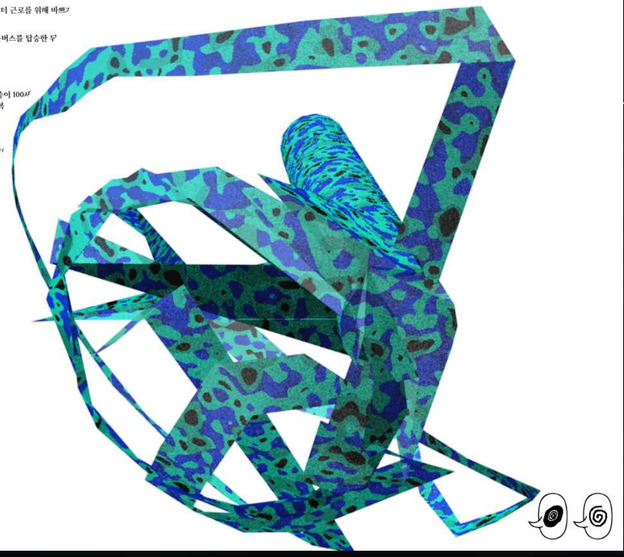
매일의 일상을 글로 기록한 후 감정을
시각화하는 프로젝트이다.

40개의 규칙에 따라 한 시간 단위로 환경, 기분,
분위기, 날씨, 주변 상황이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함께 작성한
디자인 원칙에 따라 시각화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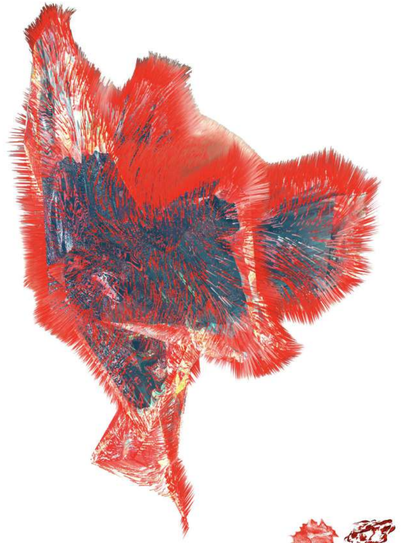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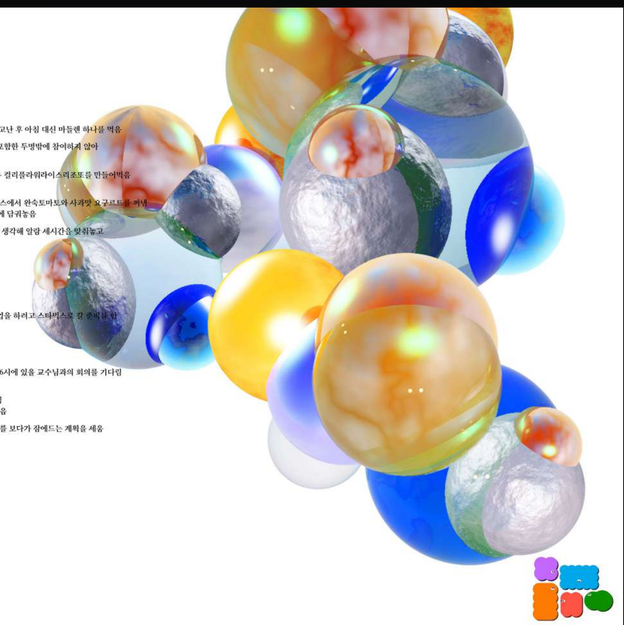
06:00-07:00	6시20분 기상
07:00-08:00	9시30분부터 시작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근로를 위해 바쁘기
08:00-09:00	먹고 집에서 나옴 집 앞에서 노량진역으로 가는 01번 마을버스를 탑승한 뒤
09:00-10:00	동두천행 지하철로 갈아탐 학교 도착 근로 시작
10:00-11:00	글쓰기특강의 유인물로 보이는 7장의 종이 100부
11:00-12:00	100세트를 끝낸 뒤 같은 작업을 2번 반복 같은 작업을 한번 더 반복
12:00-13:00	학식이 4500원에 비해 부실하다고 생각
13:00-14:00	사서 행정실 쇼파에서 먹음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가 끝지않아
14:00-15:00	취업설계 교양수업 시작
15:00-16:00	취업설계 교양수업 시작
16:00-17:00	취업설계 교양수업 시작
17:00-18:00	교수학습지원센터 ㄷ
18:00-19:00	집으로출발
19:00-20:00	
20:00-21:00	저녁으도.
21:00-22:00	
22:00-23:00	
23:00-24:00	
24:00-01:00	
01:00-02:00	



06:00-07:00	
07:00-08:00	
08:00-09:00	8시 20분 기상 빵과 계란후라이를 먹음
09:00-10:00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시간표를 가장 첫 시간으로 작성하고 10시20분에 수업 시작
10:00-11:00	종합전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비해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싶은것과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아 다음시간에 더 고민을 한 후 정하기로 함
11:00-12:00	11시 10분 수업이 끝남
12:00-13:00	12시 40분에 기간만료가 다가오는 엡틱쿠폰으로 오리지널맛 엽기떡볶이와 계란찜을 집으로 배달시킴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22:00-23:00	
23:00-24:00	
24:00-01:00	
01:00-02:00	



06:00-07:00	
07:00-08:00	
08:00-09:00	8시30분 기상 9시에 시작하는 수업을 위해 머리를 감고난 후 아침 대신 바들랜 하나를 먹음
09:00-10:00	시각디자인프로젝트 수업 시작 나를 포함한 두명밖에 참여하지 않아 수업이 한시간만에 끝나버림
10:00-11:00	늦은 아침을 먹으려고 배를 토마토 채우 갤러블라워라이스리조또를 만들어먹음
11:00-12:00	아침에 도착해있던 쿠팡 로켓프레쉬 박스에서 완숙토마토와 사과맛 요구르트를 꺼냄 함께 들어있던 드라이아이스를 싱크대에 담궈놓음
12:00-13:00	수업이 일찍 끝났으며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알람 세시간을 맞춰놓고 다시 잠에 듦음
13:00-14:00	
14:00-15:00	
15:00-16:00	기상 후 시청각캡 전시 준비를 위해 작업을 하려고스테퍼스로 간 준비를 함
16:00-17:00	회의 진행
17:00-18:00	5시40분에 친구들과의 회의를 마친 후 6시에 있을 교수님과의 회의를 기다림
18:00-19:00	내일(토요일) 오후 8시로 회의가 미뤄짐 저녁으로 트락에서 파는 목살구이를 먹음
19:00-20:00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잘겨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에드는 계획을 세움 <러브아일랜드 호주> 28화 시청
20:00-21:00	<러브아일랜드 호주> 28화, 29화 시청
21:00-22:00	
22:00-23:00	뱀트하우스 시청
23:00-24:00	11시30분 취침
24:00-01:00	
01:00-02:00	



06:00-07:00	일어난 후 샤워
07:00-08:00	머리를 말리고 아침밥으로 멸치볶음과 카레를 먹은다음 20분 안으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화장을 함
08:00-09:00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근로를 하기위해 학교로 출발
09:00-10:00	1시간 30분동안 1호선을 타고 동두천역 도착
10:00-11:00	근로시작 공연영상학부 ㅇㅇㅇ교수님의 수상축하 현수막 제작
11:00-12:00	공연영상학부 ㅇㅇㅇ교수님의 수상축하 현수막 제작
12:00-13:00	학식을 먹고 행정실로 돌아와 양치를 한 뒤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와 교내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13:00-14:00	공연영상학부 조교님이 사주신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교내 도서관 자리배치도를 수정함
14:00-15:00	교수학습지원센터의 로고 리디자인 진행
15:00-16:00	NCS진로설계 수업을 들으러 학교 옆 카페에 갔지만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학교 도서관에서 들음
16:00-17:00	NCS진로설계 수업
17:00-18:00	지난학기 행정실 학생 커뮤니티 센터에서 함께 근로를 했단 공공인재학부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나눔
18:00-19:00	6시 19분 인천행 열차를 타기 위해 학교 후문의 버스정류장으로 바쁘게 이동 19분 지하철 탑승완료
19:00-20:00	동두천-노량진 이동중
20:00-21:00	8시4분에 노량진역에서 하차-집 앞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20분 이동 집 도착 후 들깨를 넣은 도란대 나물과 밥을 먹음
21:00-22:00	9시 1분에 시청각캡 전시를 준비하는 화상 회의를 진행 (4학년 동기1명과 졸업한 선배 1명)
22:00-23:00	회의진행
23:00-24:00	회의진행
24:00-01:00	포스터 제작 방향의 의견이 정해지지 않아 생각보다 늦은 시간인 새벽1시가 다되서야 회의가끝남
01:00-02:00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1시47분 취침

모두동두

동두천시 문화복지 플랫폼

2020. 04. – 10.
team work 30% (놀이터 app/판넬 제작)
application

경기도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두천시 문화 복지 서비스 플랫폼
모두의 동두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모두의 동두천은 기존 서비스가 시민에게 닿는 과정을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동두천시 문화복지 서비스 플랫폼

모두동두

작은 원들이 모여 글자를 만드는 모두동두의 로고.
모두동두는 모두 모여 다양한 가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동두천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복잡한 문화복지 서비스 접근 경로 개선**
기존의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어르신을 위한 배움의 커뮤니티**
배움이 필요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3가지 형태의 배움터를 구성

✓ **어린이를 위한 학습의 놀이터**
어린이가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계획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복지 서비스도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르신과 어린이 이외에도 다른 연령대의 시민, 소수자나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를 부가해나갈 예정입니다.

배움을 즐기는 함께 배움터

어르신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사용자 성향에 맞춰 제공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 배움터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 치료부터 교육과 일자리까지
유익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를 연결하는 누리 배움터

노년인구의 전반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

【어르신이 참여하는】
배움터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배움을 즐기는 함께 배움터,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 배움터,
복지를 연결하는 누리 배움터는
보다 쉽고 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해 줍니다.

【어린이가 함께 노는】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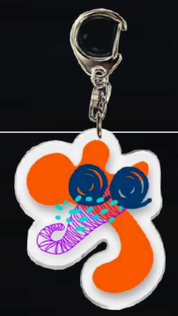
모두의 놀이터에는 지식탐험 공간
우당탕 놀이터, 어린이 교육 공간
또박또박 놀이터, 자연친화공간
와글와글 놀이터가 있습니다.
동두천의 지리적특성을 활용한
자연놀이프로그램 구축, 놀이 맵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봐!

어린이들이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흥미 분야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두의 몬스터를 수집해볼까?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몬스터를 수집해 보상(키트)을 받습니다.
재미와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아이돌
근총
로봇
코딩
축구
(또랑또랑)
놀이터
자연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모두의 독서 캠프
장소: 놀지 숲
일시: 2021년 7월 16일
New
진행중인 프로그램
온라인 아이와 그림으로 대화하기
장소: 꿈나무정보도서관
일시: 2021년 9월 03일 ~ 9월 23일
신청
슬기로운 집콕 책놀이
장소: 꿈나무정보도서관
일시: 2021년 7월 06일 ~ 7월 13일
신청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찾아라
장소: 꿈나무정보도서관
일시: 2021년 9월 23일 ~ 10월 16일
신청
어린이 영어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장소: 꿈나무정보도서관
일시: 2021년 10월 03일 ~ 10월 17일
신청
빛과 소리탐험!
(모두의)
놀이터
우당탕
놀이터
와글와글
놀이터
또랑또랑
놀이터
(나의)
놀이터
김소현님의 도감
(나의)
놀이터
호기심쟁이 탐험가
김소현 +
소속: 보신초 2학년 3반
생년월일: 2010.10.27
수집한 벽지
수강신청

ZERO ZERO 디자인 스튜디오

시민과 공공기관의 어울림을 추구하는

‘영 영(zero zero)’ 디자인 스튜디오

zero zero 디자인 스튜디오

2020. 07. – 12.
team work 50%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디자인학부 김소현, 김시은이 활동 중인 스튜디오이다.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우당탕 어린이 박물관>,
해바라기센터 리브랜딩을 통한 여성 평등 통합
서비스 <여풍당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Q.‘영영 스튜디오’는 어떤 스튜디오인가요?

3

영영스튜디오 = 공공서비스 + 소비자 경험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저희는
소비자의 경험을 반영해 디자인을 하는 컨설팅
스튜디오입니다.

공공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디자이너이자 개발자입니다.

Q.개선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거네요 이외에도 스튜디오가 가지는 특징이 있을까요?

19

저희는 낙후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 특성 및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장분석과 사용자 분석을 함으로써
스튜디오 운영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런 분석과 컨셉도출을 통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여성이 받는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여성 평등 통합 서비스

DESIGN KEYWORD

정정당당 · 함께하는 · 소통하는

'여풍당당'은 모든 여성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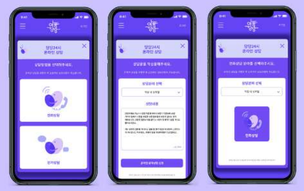
전문 상담사와의 24시간 상담 및 여풍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한 소통의 장을 형성해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여러분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강한 바람에 출항이는 파도를
모티브로 한 초기화면

여풍당당의 상징색인
보라색을 활용한 로그인 화면

여풍당당의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풍 아이콘의 온보딩 화면

1. 당당24시상담



전문 상담사와 온라인 문자/전화 상담이 24시간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상담 이후 여풍당당 센터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그룹상담 또는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당고민토크

각자의 부당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익명설정이 가능한 고민토크 서비스입니다.

관심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고, 회원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토크방을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여풍커뮤니티

당당고민토크에서 설정한 관심분야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소모임을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모임을 개설한 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면
여풍당당 오프라인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대여하고 세미나 또는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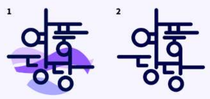
4. 여풍후기

당당24시상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된 상담사와의 상담 후기를 열람한 뒤 편안하게
당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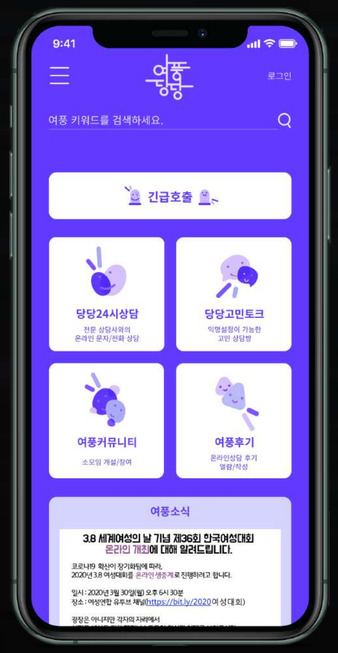
여풍당당 로고 시스템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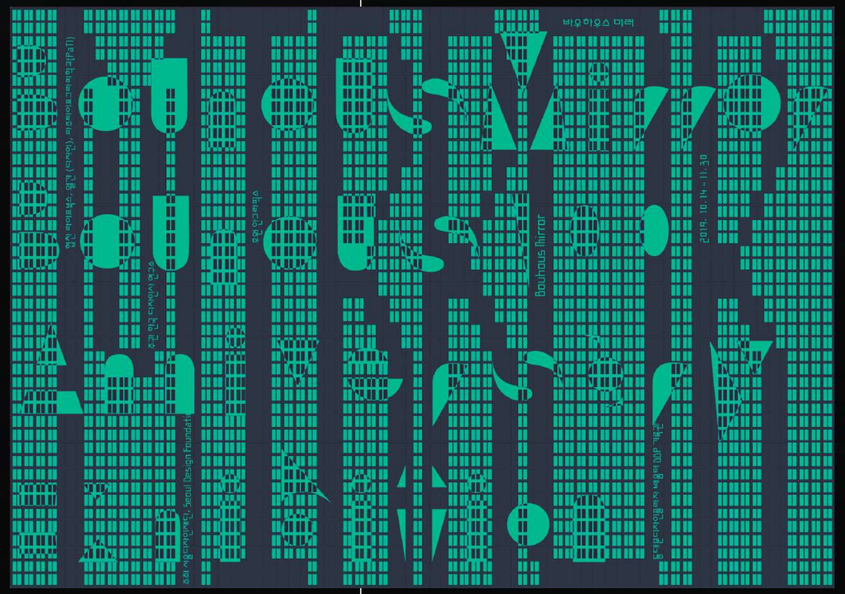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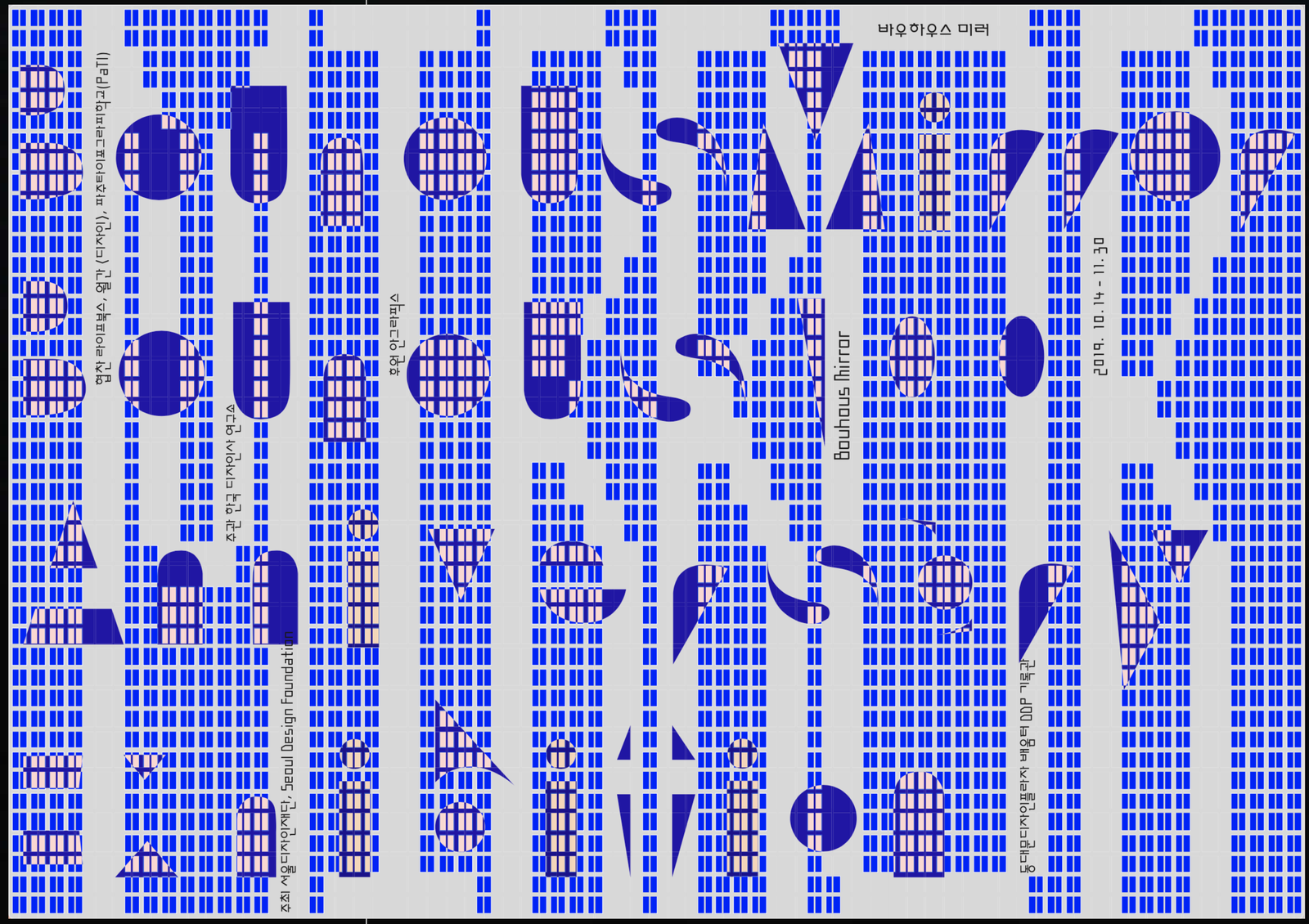
자음과 모음의 획이 길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여성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형상화 한 모습입니다.

여풍 아이콘 시스템



BAUHAUS MIRROR





BAUHAUS MIRROR

2019. 10 – 11.
personal work
poster

서울 디자인재단 주최 바우하우스 미러 전시 section 4.재현에 참여하여 작업한 포스터이다.

바우하우스 건축의 조형적 특징 중, 그리드처럼 보이는 창문을 모티브로 작업했다.

REMAPPING THE HUMAN SOUL

REMAPPING THE
HUMAN SOUL

2019. 03 – 05.
personal work
album

에픽하이의 4집 Remapping the human soul을 리디자인 하였다. 사람의 뇌 주름을 모티브로 하여 앨범 커버부터 내지 디자인까지 유기적인 형태의 통일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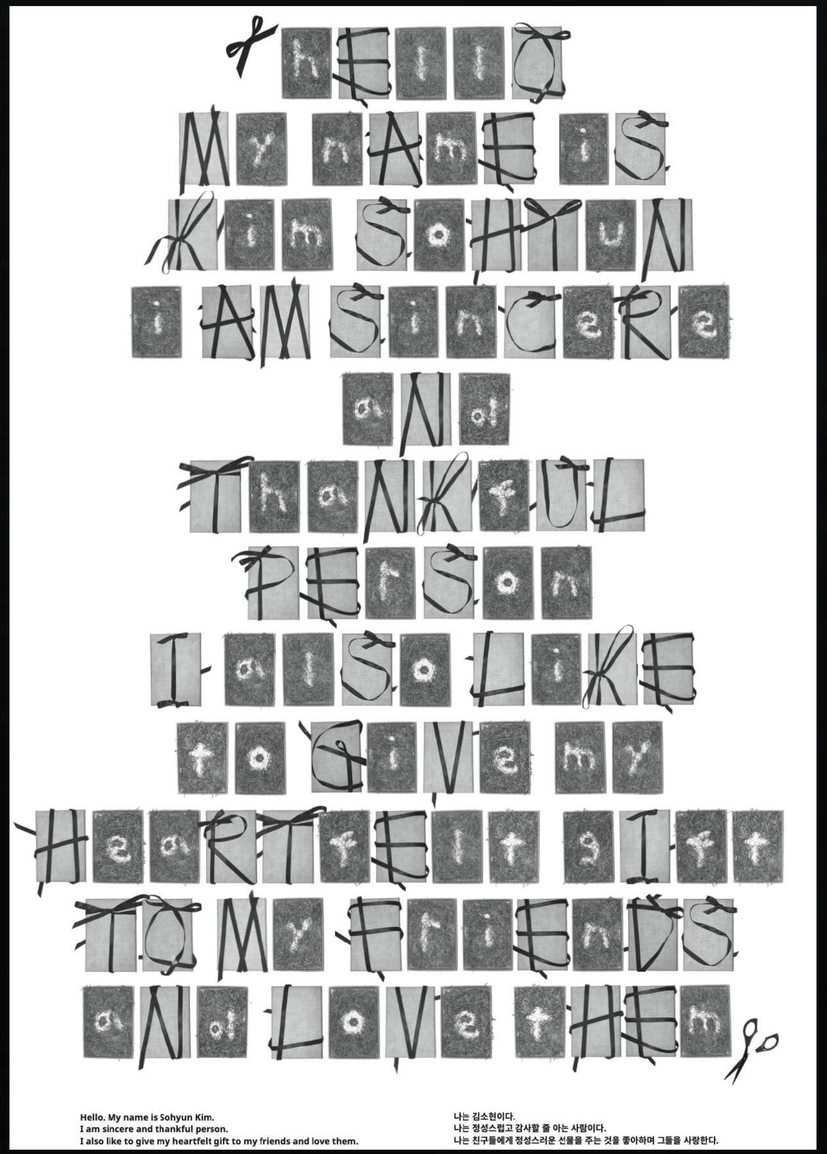
PRESENT TYPE

PRESENT TYPE

2019. 03 – 05.
personal work
typeface

“I am sincere and thankful person”라는 문장을
작성한 후 선물 박스를 활용한 영문 서체를 제작했다.

대문자는 박스를 포장하는 리본, 소문자는 박스
내부를 보호해 주는 충전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거나 특별한 날을 축하할 때
활용하기 좋은 서체이다.



Hello. My name is Sohyun Kim.
I am sincere and thankful person.
I also like to give my heartfelt gift to my friends and love them.

나는 김소현이다.
나는 정성스럽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을 사랑한다.

POSTER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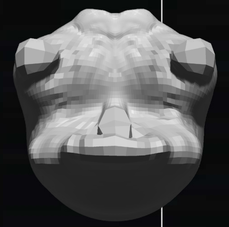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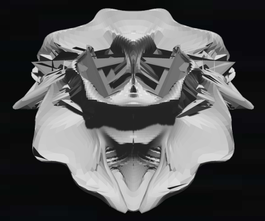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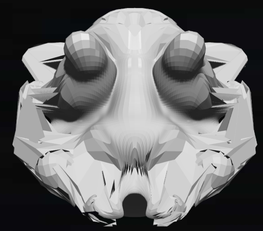
POSTER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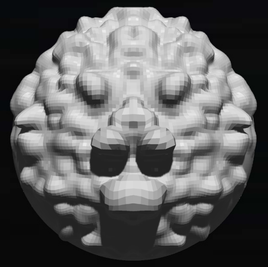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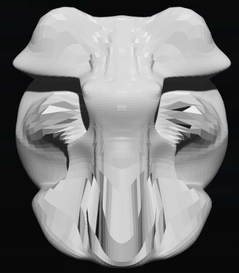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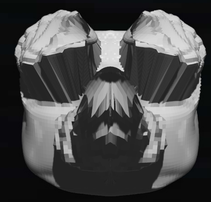
2019. 07 – 11.
personal work
poster

한 장의 사진에서 100가지의 문장을 추출, 추출한 문장과 키워드를 신체로 표현한 후 문장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한 장의 사진에서 나온 100장의 포스터를 이어붙여 다시 한 장의 이미지로 보이도록 작업했다.

X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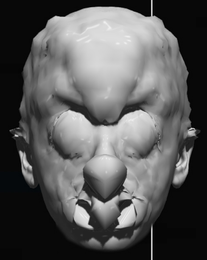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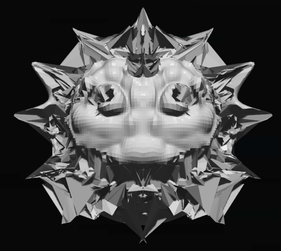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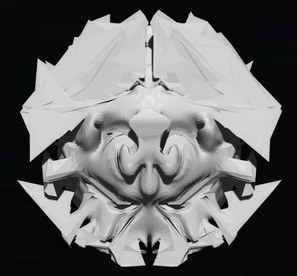
XFACE

2020. 08 – 10.
personal work
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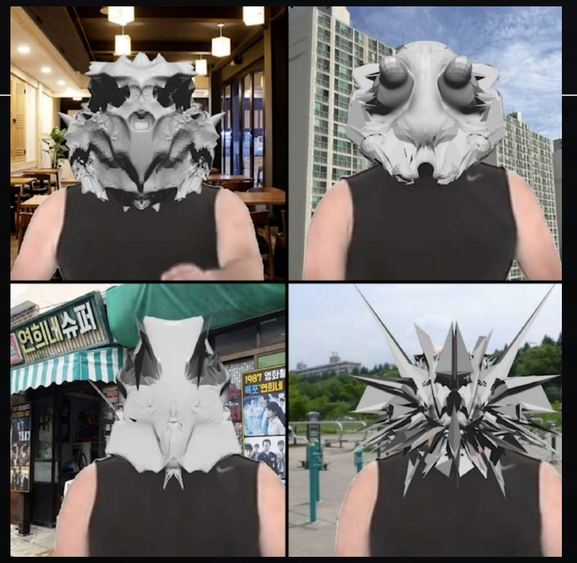
디지털 조소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면을 쓴 모두가
각각의 프레임 공간에서 공존한다.
이들이 걷고 있는 프레임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성은 극대화되지만 분리된 프레임에
의해 서로를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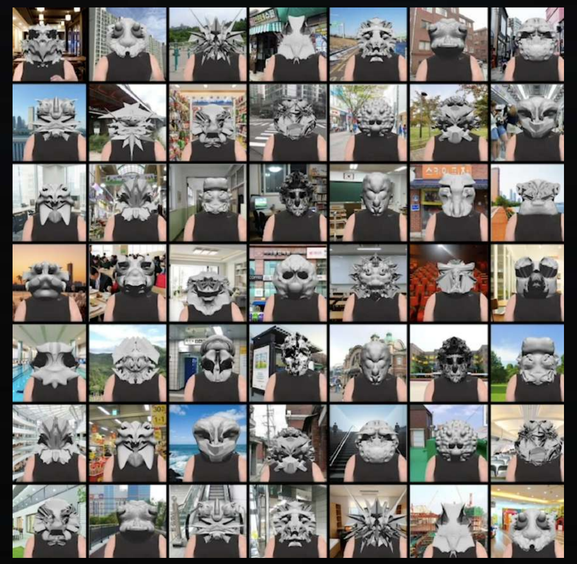



LOTTE


연희내슈퍼

연희내슈퍼

연희내슈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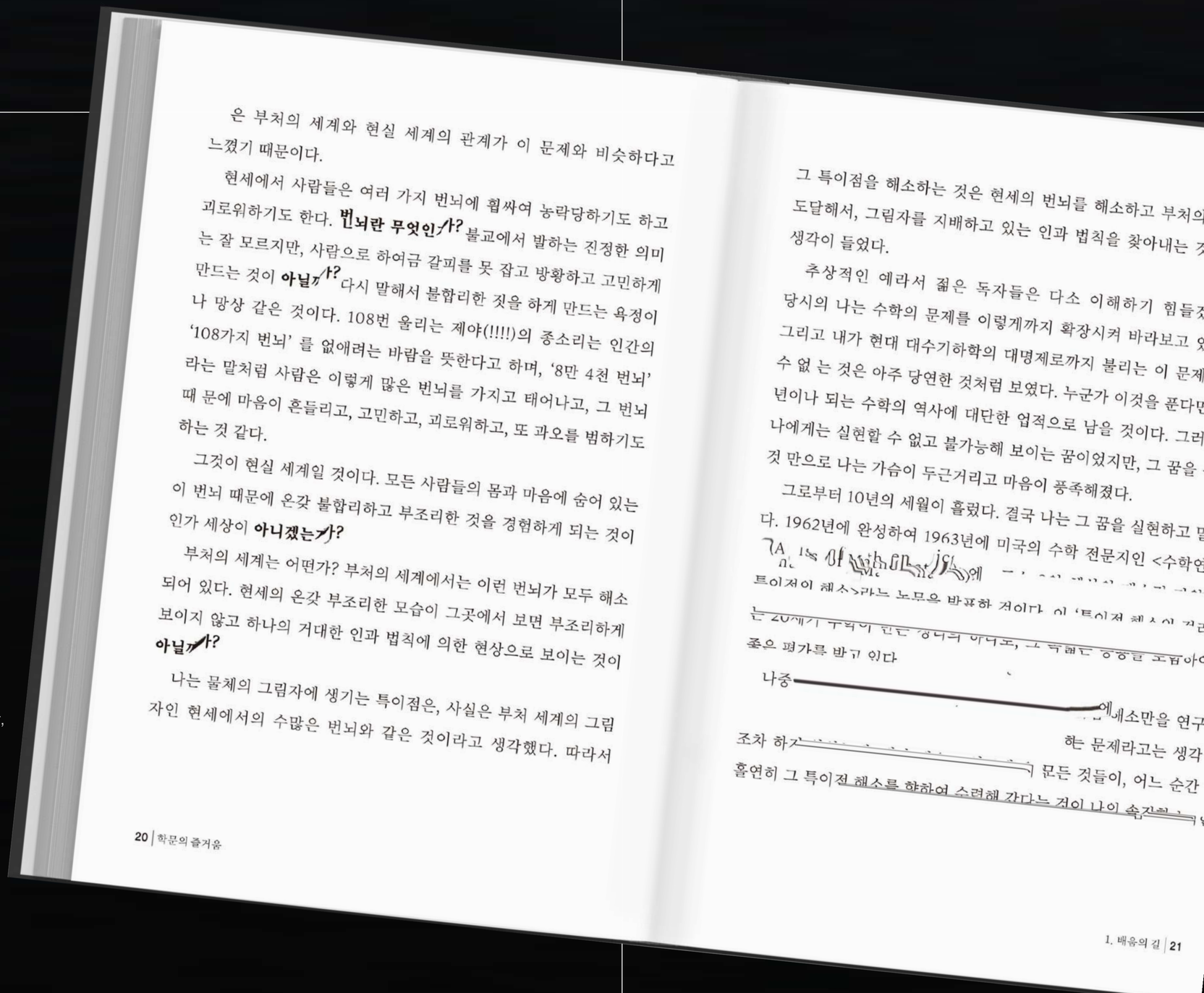


학문의 즐거움 – 어지러움 버전

학문의 즐거움 어지러움 버전

2021. 02 – 04.
personal work
book

학문의 즐거움 어지러움 버전은 난독증이 있거나,
책을 보기만 하면 졸음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겪는 현상들을 시각화한 책이다.



은 부처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가 이 문제와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현세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번뇌에 휩싸여 농락당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다. **번뇌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발하는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불합리한 짓을 하게 만드는 욕정이나 망상 같은 것이다. 108번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 를 없애려는 바람을 뜻한다고 하며, '8만 4천 번뇌' 라는 말처럼 사람은 이렇게 많은 번뇌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번뇌 때 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과오를 범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것이 현실 세계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숨어 있는 이 번뇌 때문에 온갖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가 세상이 **아니겠는가?**

부처의 세계는 어떤가? 부처의 세계에서는 이런 번뇌가 모두 해소되어 있다. 현세의 온갖 부조리한 모습이 그곳에서 보면 부조리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인과 법칙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나는 물체의 그림자에 생기는 특이점은, 사실은 부처 세계의 그림자인 현세에서의 수많은 번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특이점을 해소하는 것은 현세의 번뇌를 해소하고 부처의 도달해서, 그림자를 지배하고 있는 인과 법칙을 찾아내는 것 생각이 들었다.

추상적인 예라서 젊은 독자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겠 당시의 나는 수학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장시켜 바라보고 있 그리고 내가 현대 대수기하학의 대명제로까지 불리는 이 문제 수 없 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이것을 푼다면 년이나 되는 수학의 역사에 대단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 나에게는 실현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지만, 그 꿈을 것 만으로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풍족해졌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결국 나는 그 꿈을 실현하고 말 다. 1962년에 완성하여 1963년에 미국의 수학 전문지인 <수학연 [illegible] 에 [illegible] 특이점의 해소>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특이점 해소의 [illegible] 는 20세기 후반의 한 정점의 하나로, 그 독창적 공헌을 [illegible]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중 [illegible] 에 [illegible] 세소만을 연구 [illegible] 하는 문제라고는 생각 조차 하지 [illegible] 문든 것들이, 어느 순간 [illegible] 홀연히 그 특이점 해소를 향하여 수렴해 간다는 것이 나의 속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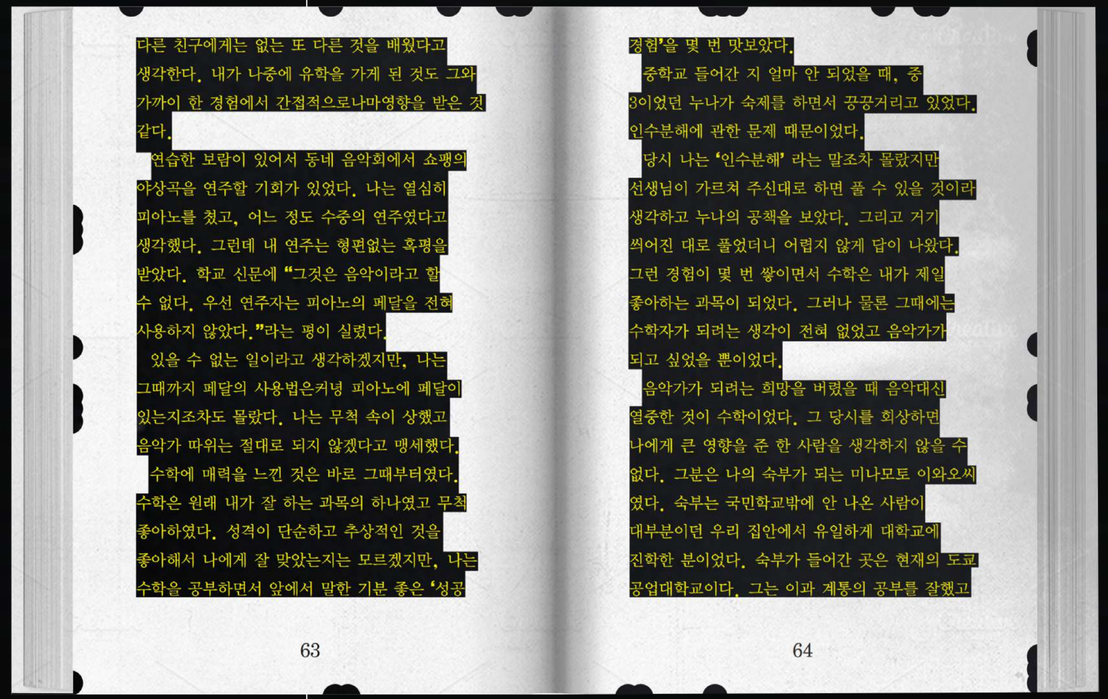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은연중에 꿈을 이루어 보려고 힘이 생기거나,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
있어 보이기도 한다.
나도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을 가졌다 약 30여 년 전인 대학 3학년
때 나는 수학을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대수기하(　)라는 분
야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대수기하는 1백여 년 전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러나 그 원천은 프랑스의 철학자
물리학자 수학자인 데카르트(R.Descartes)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도로 오래 되었다. 데카르트는 X축, Y축이라는 좌표축을 고안하
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되었고, 이 좌표축이 발달함에 따라 복잡한 방정식을 도형으로
수 있게까지 되었다.
대수기하학은 바로 이 대수방정식에 의해 정의된 도형(대수
다양 체)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발
손 학 분이다.
보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유한 개의 변수 X1, X2,……Xn의 유
개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을
정도이라고 할 수 있다.

16 | 하문의즐거움

그 당시 나는 기하학을 좋아했는데, 대수기하를 중점적으로 공부
하고 있던 일본의 교토(!!!!!!!) 대학의 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대수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세미나에서 대수기하학에서는 아직 해결하
못한 문제가 소개되었다.
문제의 개요를 유원지에서 사람들이 타고 노는 제트 코스터(
Coaster)라는 놀이 기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코스터가 화창한 봄빛을 받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주면
그것을 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그리고 있으며, 차체가 급속도로 내려갈 때마다 승객들은
게도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 그 궤도는 역학적으로 계산된
가까운 환성을 지르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
그런데 지상에 그려진 그 궤도의 그림자는 대단히 복잡
그림자는 빈잡하게 보이게 마련이지만, 제트 코스터 궤도의 그림
선과 선이 복잡하게 교차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뾰족한 모
이루고 있다. 그 궤도의 그림자만 보고 있어도 섬뜩하게
정도로 대
대수기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많은 도형에 생기는데, 수학의

1. 예술의 집 | 17

학문의 즐거움 – 안 어지러움 버전


다른 친구에게는 없는 또 다른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된 것도 그와 가까이 한 경험에서 간접적으로나마영향을 받은 것 같다.

연습한 보람이 있어서 동네 음악회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열심히 피아노를 쳤고, 어느 정도 수중의 연주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연주는 형편없는 혹평을 받았다. 학교 신문에 "그것은 음악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연주자는 피아노의 페달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평이 실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때까지 페달의 사용법은커녕 피아노에 페달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나는 무척 속이 상했고 음악가 따위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수학에 매력을 느낀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수학은 원래 내가 잘 하는 과목의 하나였고 무척 좋아하였다. 성격이 단순하고 추상적인 것을 좋아해서 나에게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앞에서 말한 기분 좋은 '성공

63

경험'을 몇 번 맛보았다.

중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중3이었던 누나가 숙제를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인수분해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인수분해' 라는 말조차 몰랐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하면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누나의 공책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 씌어진 대로 풀었더니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다.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이면서 수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다. 그러나 물론 그때에는 수학자가 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음악가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음악가가 되려는 희망을 버렸을 때 음악대신 열중한 것이 수학이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 나에게 큰 영향을 준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나의 숙부가 되는 미나모토 이와오씨였다. 숙부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던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교에 진학한 분이었다. 숙부가 들어간 곳은 현재의 도쿄공업대학교이다. 그는 이과 계통의 공부를 잘했고

64

학문의 즐거움 안 어지러움 버전

2021. 05. – 07.
personal work
book

학문의 즐거움 안 어지러움 버전은 난독증 증상이 있거나 책을 보기만 하면 졸음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모든 페이지에는 집중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보조 요소들이 글자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매혹당하여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학에 기울어져 갔다.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는 것이 무척 매력적이었다.

수학에 대한 흥미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은 수학 세미나였다. 수학 세미나에서는 소련의 수학자 폰트랴긴(L. S. Pontryagin)이 쓴 〈연속군론〉을 다루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양은 모두 몇 가지 대칭을 갖고 있다. 직사각형은 상하와 좌우의 대칭이 있고 원은 중심을 향하는 모든 방향에서 대칭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대칭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대칭은 군을 만든다. 그것이 연속적일 때 연속군이라고 한다. 연속군 이론은 위상기하학, 해석(미분, 적분 등), 대수 등 여러 가지 수학 이론에 관련되는 재미있는 이론이다.

나는 이렇게 물리와 수학 양쪽을 배우는 동안에 수학이 더욱 재미있어졌고 결국 나의 적성이 수학에 맞는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2년간의 교양 과정을 마치고 전공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나는 수학을 택했다. 따라서 진정으로 수학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대학 3학년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내가 수학을 전공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했다. 이처럼 나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자마자 수학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수학자로서 살아가려고 결심하기까지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수학자 가정에서 태어나 수학자인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수학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한, 현재 수학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동소이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이 길에 들어섰을 것이다. 아니 수학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의 인생은 직선적이라기보다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선택해서 사귈 수 있다.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선택한 친구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친구라는 존재는 부모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자신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항상 가까운 곳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았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 왔다. 의식적으로 배우려고 한 것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다. 다분히 내 성격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꼭 성격 탓만도 아닌 것 같다. 재능을 타고나거나 학구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머리를 가지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공부를 해 나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나 같은 사람에게 꼭 맞는 제일 좋은 배움의 방법이었던 것 같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는 운이 따른다. 친구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에서 나는 행운아였다고 생각한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좋은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3차원의 특이점 해소 이론이 난해하기 짝이 없는 데다 억지로 꿰어 맞춘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4차원 이상은 도저히 손댈 수 없으리라는 것이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던 세계 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솔직한 심정이기도 했다. 그것은 아무도 풀어 보지 못한, 또 풀 수도 없는 문제였다.

•특이점 해소의 정리를 조금 신비스럽게 말하면 물체의 본질과 그 그림자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제트 코스터를 예로 들면 특이점이 없는 제트 코스터 궤도 자체인 본질과, 특이점이 있는 제트 코스터 궤도의 그림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한 정리가 발견되면 모든 그림자는 본질로 돌아가고 특이점은 해소될 것이다.

•여기서 당시 내가 품은 꿈을 이야기해 보겠다. 그때는 수학의 기술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엉뚱한 야망은 전혀 없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모든 능력을 다 쏟는다 해도 결국은 헛수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체념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이 문제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 그것은 한번도 만나 보지 못한, 어차피 만나지도 못할 아름다운 여성을 짝사랑 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왜 매력을 느꼈을까? 그 이유를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나는 물체의 본질과 그 그림자와의 관계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사는 세계와 사람이 사는 세계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 불전이나 일반 불교서를 읽은 것도 아니고, 고작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강요로 매일 아침 불단을 향해 겨우 손을 모았을 정도이다. 그런 내가 특이점 해소라는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연상을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이 문제에 마음이 끌린 것은 부처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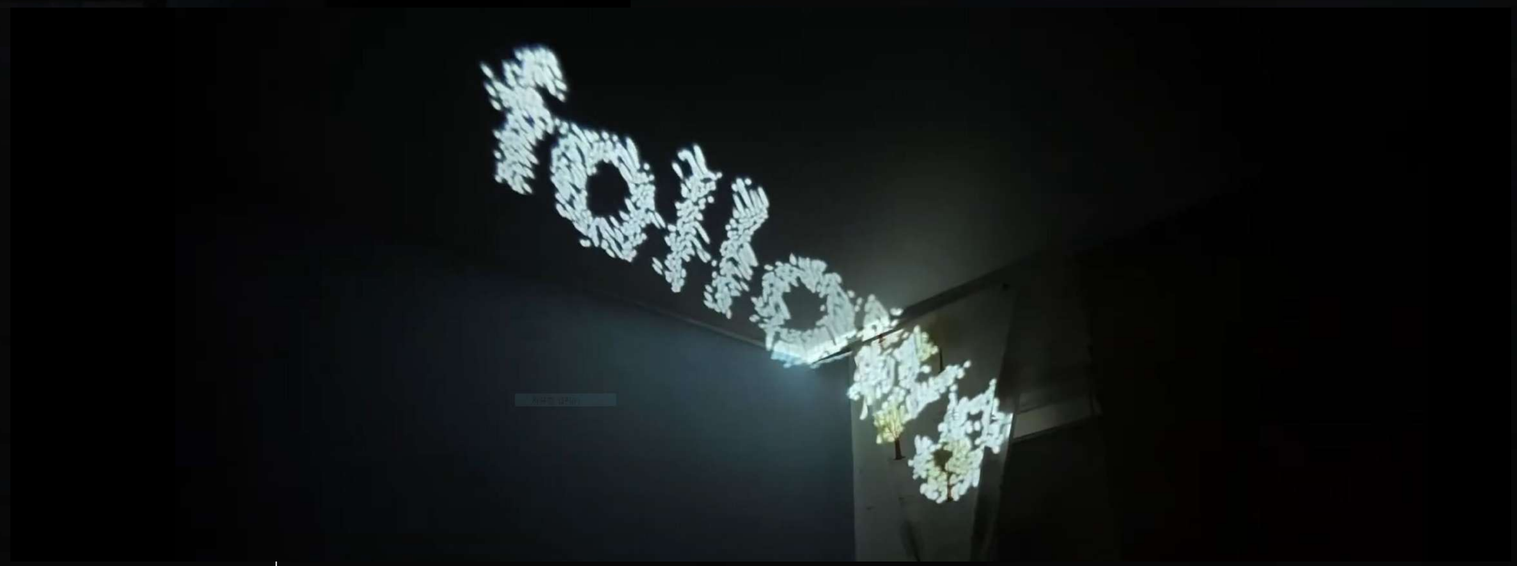
물리나 수학을 대단히 좋아했다.

나는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생이더 **숙부를 따라서** 자주 산책을 했다. 어머니의 친정은 **유우카와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아라케라는 곳에 **있었고** 근처에 소나무밭이 있었다. 숙부는 방학 **때 고향에 내려오면** 나를 데리고 그 소나무밭까지 **가서 햇빛에 반짝이는** 세토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숙부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나 수학자에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숙부는 물리나 수학**,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이라는 **학문의 멋있음과** 아름다움을 열띤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어린 나는 숙부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들으면서 어쩐지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을 이렇게 열중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었다.**

그러나 숙부와 내가 만난 것은 고작해야 다섯 번 **정도였다.** 숙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취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마흔 두 살 때

DISTORTED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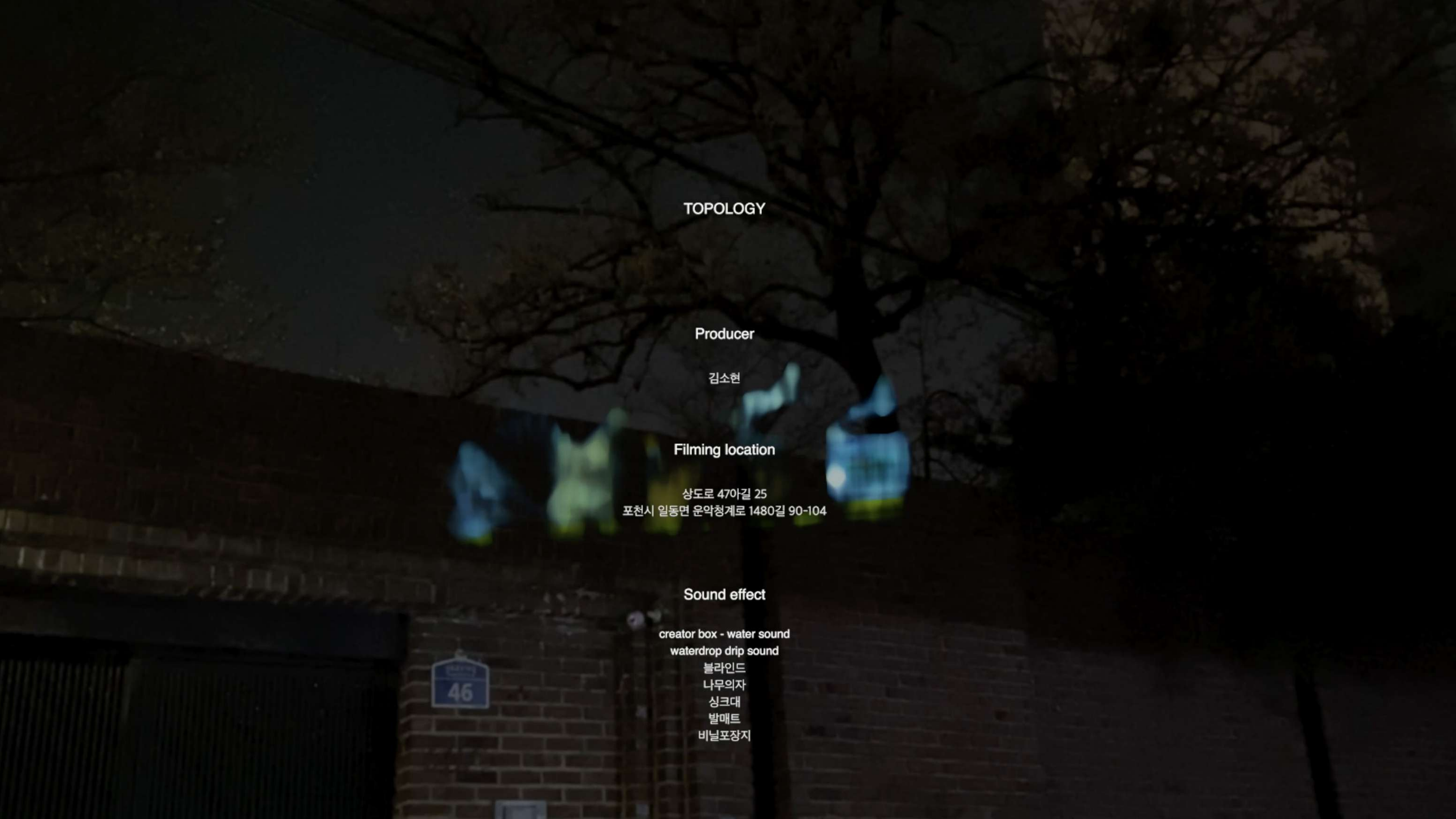


DISTORTED WORLD

2020. 08. – 11.
personal work
video/website

1961년 IBM Mathematica 전시의 개막식에서
상영된 TOPOLOGY 영상의 내레이션 문장 일부를
발췌해 제작한 영상과 웹사이트 작업이다.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다시 영사한 후, 촬영
한다는 규칙을 세우고 이 규칙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왜곡된 내외부의 영상이 쌓여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고 영상의 진행속도와 사운드 또한 점점 빨라진다.



TOPOLOGY

Producer

김소현

Filming location

상도로 47아길 25
포천시 일동면 운악청계로 1480길 90-104

Sound effect

creator box - water sound
waterdrop drip sound
블라인드
나무의자
싱크대
발매트
비닐포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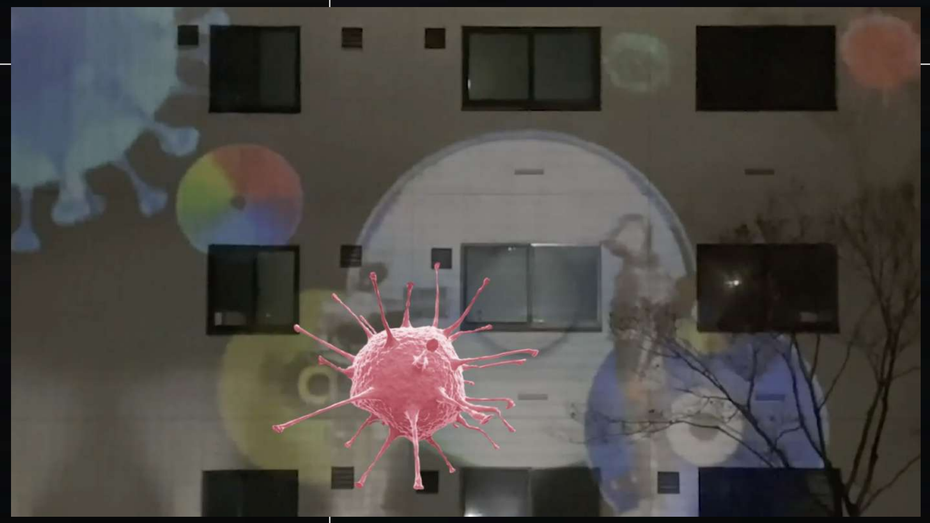
GET YOUR SELF HIGH

GET YOUR SELF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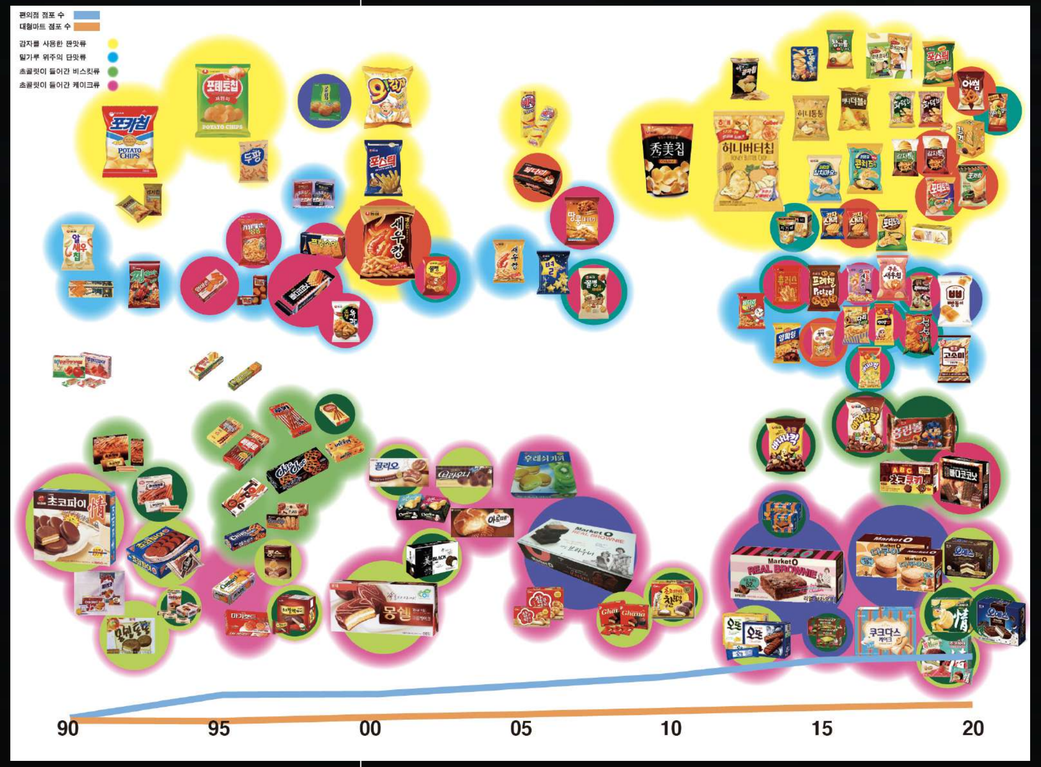
2020. 07. – 10.
personal work
poster/video

중국의 무술영화와 힙합 요소를 합성해 패러디한
영상을 다시 한번 패러디한 작업이다.

가상의 이미지를 현실 공간에 재현하였으며,
디지털로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공허해진 공간을 돌아다니고, 채워나가는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과자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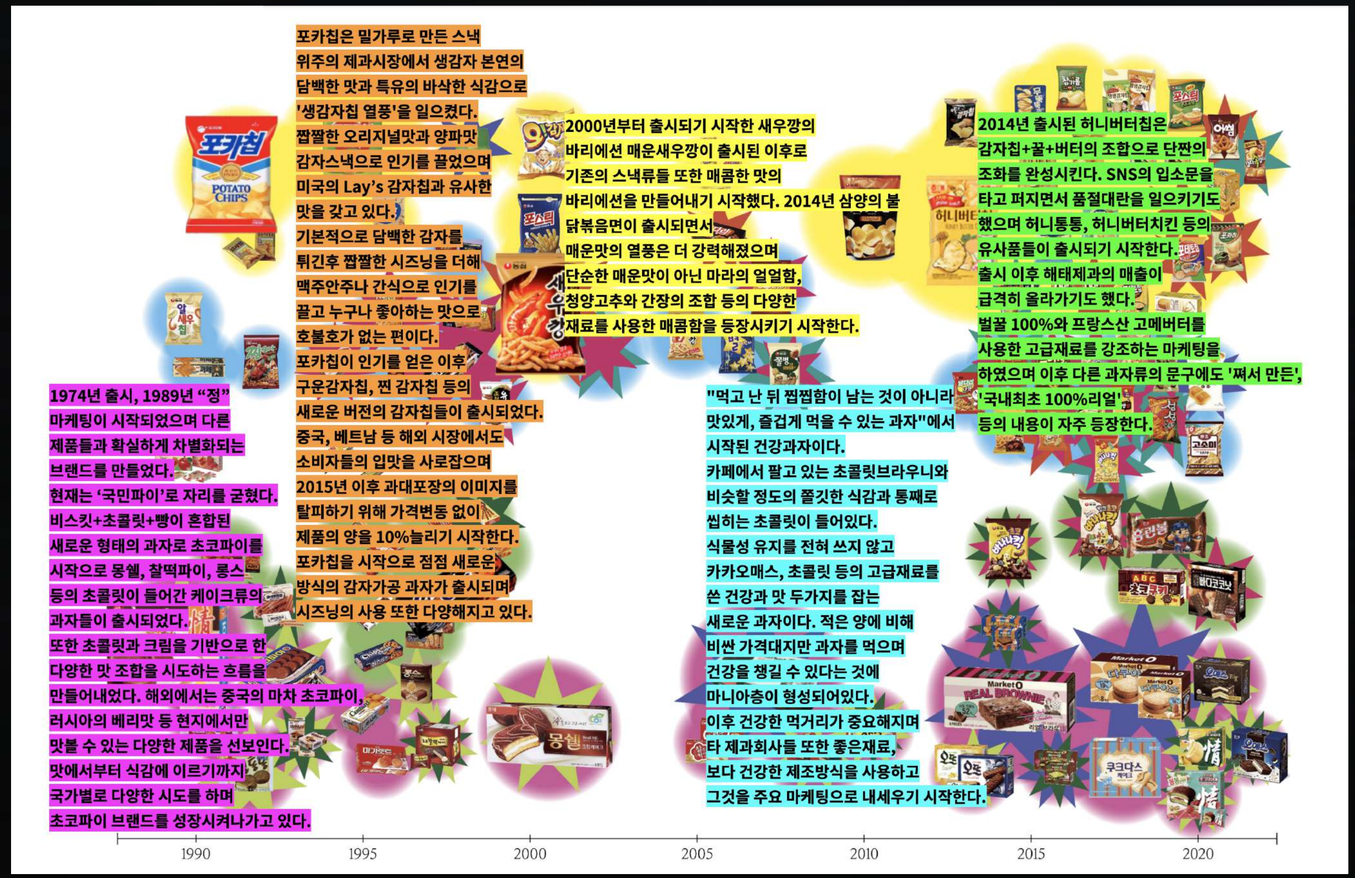


과자의 모든 것

2020. 08. – 11.
personal work
infographic/website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기과자를 수집한 후 단맛, 짠맛, 비스킷류, 케이크류로 분류한 인포그래픽 포스터이다.

과자의 모든 것 웹사이트에서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보고자 하는 정보가 나타나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브랜드 소개서

CONTENT

1. ABOUT COLUMBIA UNIVERSITY
2. EDITORIAL
3. INFLUENCER
4. 22 SPRING STYLE MAP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뉴욕을 대표하는 대학

전 세계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명문 사립 대학

History

뉴욕 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1754년 영국 왕 조지 2세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킹스 칼리지로부터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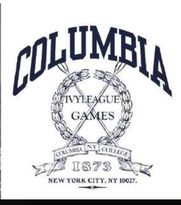
전 세계 수 많은 저명인사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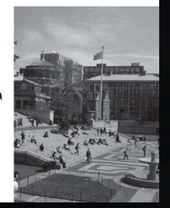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 오바마 대통령 등 다수의 유명인들을 배출한 명문 대학

THE IVY LEAGUE

COLUMBIA UNIVERSITY®

아이비리그의 일원 Columbia Athletics™





Columbia University 21FW Collection

Columbia University WITH HIPHOPER LOVE YOUTH

Columbia University WITH HIPHOPER LOVE YOUTH

상세 이미지

'아이비리그를 대표하는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의 오피셜 패션브랜드로서, 그들만의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를 반영하여 디자인된 시그니처 패션을 선보입니다.
21FW는 현대트렌드로 재해석된 뉴트로 아메리칸 캐주얼로,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CU ARCH LOGO HOODIE

420G Cotton 100% Heavy Weight

CU 아치로고 후드티

COLUMBIA UNIVERSITY® 아치로고를 펠트온
펠트 아플리케 처리하여 표현한 후디.

- 드롭숄더 핏으로 편안함과 트렌디한 무드의 연출
- 420G/sqm 헤비 코튼100% 테리 원단
- 아치 로고의 펠트온펠트 아플리케 처리
- 소매 IVY LEAGUE COLUMBIA FLAG 와펜
- COLUMBIA & ROYAL CROWN 사이드라벨

본 제품은 COLUMBIA UNIVERSITY®의 정식 라이선스 제품입니다.

(주)트렌덱스는 COLUMBIA UNIVERSITY의 정식 수입, 라이선스를 전개하는 유일한 공식 판매처입니다. (주)트렌덱스를 통한 정식 수입, 라이선스 제품은 품질보증과 AS가 가능하며, 국내 일부 병행수입 업체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포함한,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LUMBIA™
UNIVERSITY
OFFICIAL LICENSED PRODUCT

TRENDEX는 2008년부터 세계적인 워크웨어 브랜드
Dickies®를 국내에 제조, 유통한 패션기업으로서, 국내최초로
Columbia University®를 독점 전개합니다.

세계의 도시 뉴욕의 중심에 위치한 역사와 전통의 명문
COLUMBIA UNIVERSITY®를 소개합니다.
1754년 KING'S COLLEGE 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2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 워렌 버핏
등 수많은 유명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THE IVY LEAGUE
COLUMBIA UNIVERSITY®

명문대학의 상징 "IVY LEAGUE"

미국 북동부 지역의 8개 사립대학
즉, Columbia, Harvard, Pennsylvania, Princeton,
Brown, Yale, Dartmouth, Cornell 대학교를 통틀어 아이비리그라 부릅니다.
영국 식민지시대에 세워진 유서 깊은 대학들로서 '에인션트 에이트(Ancient Eight)'
혹은 '아이비스(Ivies)'라 불리기도 합니다.

COLUMBIA™
UNIVERSITY
OFFICIAL LICENSED 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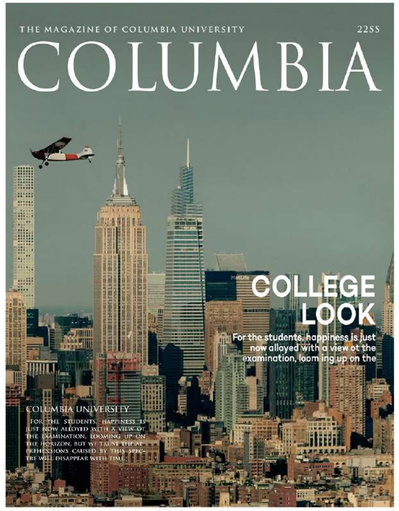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1754, 영국왕 조지 2세에 의해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로
처음 설립되어 뉴욕 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답게 역사와 전통이 깊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론사 및 예술, 문화 센터가 모여있는
뉴욕, 그 중심에 컬럼비아 유니버시티(Columbia University)가 위치해 있다.

Columbia University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는 '전통과 다양성' 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구성된 패션 브랜드이다.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되,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을 선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모던 헤리티지 캐주얼웨어'를 만나볼 수 있다.

IT'S NOT NECESSARY TO SAY "IN THE CITY OF NEW YORK" AT COLUMBIA UNIVERSITY. FOR THIS REASON. HISTORICAL TRADITIONS AND DIVERSITY OF THE WORLD WERE BROUGHT TOGETHER HERE.



22 SPRING COLLECTION

현대트렌드로 재해석된 뉴트로 아메리칸 캐주얼로,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LATE EDITION

TODAY, MORNING CLOUDS GIVING WAY TO SUNSHINE BY THE AFTERNOON. HIGH 65.TONIGHT, CLOUDY, LOW 54. TOMORROW, CLOUDS GIVING WAY TO SUNSHINE. HIGH 70. WEATHER MAP IS ON PAGE 23.

VOL...CLXIX. . . NO...58.703 | NEWYORK, SUNDAY, MARCH, 24, 2022 | $6.00

For the students, happiness is just now alloyed with a view ot the examination, looming up on the horizon, but we trust the apprehensions caused by this spectre will disappear with time. Of course all of our readers are now full of good intentions for the year, and though we tiust they well know their own deficiencies. we will nevertheless ventiure to suggest some more, and hope that it not all.
at least the most will be carried out. We hope our venerable trustees seriously intend to provide tor new buildings by next October, to re-establish Cramweek and the study of history, to appropriate a handsome sum for the Semi-Annual, to increase the library, to buy a new organ ; in fine

to 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to do,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ot to have done. The President can hardly form a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ot to have done. The President can hardly form a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

NEWYORK

For the students, happiness is just now alloyed with a view ot the examination, looming up on the horizon, but we trust the apprehensions caused by this spectre will disappear with time. Of course all of our readers are now full of good intentions for the year, and though we tiust they well know their own deficiencies. we will nevertheless venture to suggest some more, and hope that it not all.
at least the most will be carried out. We hope our venerable trustees seriously intend to provide tor new buildings by next October, to re-establish Cramweek and the study of history, to appropriate a handsome sum for the Semi-Annual, to increase the library, to buy a new organ ; in fine

to 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to do,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ot to have done. The President can hardly form a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ot to have done. The President can hardly form a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

HERTAGE

COLLEGE LOOK

For the students, happiness is just now alloyed with a view ot the examination, looming up on the horizon, but we trust the apprehensions caused by this spectre will disappear with time. Of course all of our readers are now full of good intentions for the year, and though we tiust they well know their own deficiencies, we will nevertheless venture to suggest some more, and hope that it not all.
at least the most will be carried out. We hope our venerable trustees seriously intend to provide tor new buildings by next October, to re-establish Cramweek and the study of history, to appropriate a handsome sum for the Semi-Annual, to increase the library, to buy a new organ ; in fine

to 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to do,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ot to have done. The President can hardly form a better intention at the

For the students, happiness is just now alloyed with a view ot the examination, looming up on the horizon, but we trust the apprehensions caused by this spectre will disappear with time. Of course all of our readers are now full of good intentions for the year, and though we tiust they well know their own deficiencies, we will nevertheless venture to suggest some more, and hope that it not all.

For the students, happiness is just now alloyed with a view ot the examination, looming up on the horizon, but we trust the apprehensions caused by this spectre will disappear with time. Of course all of our readers are now full of good intentions for the year, and though we tiust they well know their own deficiencies, we will nevertheless venture to suggest some more, and hope that it not all.
at least the most will be carried out. We hope our venerable trustees seriously intend to provide tor new buildings by next October, to re-establish Cramweek and the study of history, to appropriate a handsome sum for the Semi-Annual, to increase the library, to buy a new organ ; in fine

to 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to do,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ot to have done. The President can hardly form a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ot to have done. The President can hardly form a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

NEWYORK

For the students, happiness is just now alloyed with a view ot the examination, looming up on the horizon, but we trust the apprehensions caused by this spectre will disappear with time. Of course all of our readers are now full of good intentions for the year, and though we tiust they well know their own deficiencies, we will nevertheless venture to suggest some more, and hope that it not all,

COLLEGE LOOK

For the students, happiness is just now alloyed with a view ot the examination, looming up on the horizon, but we trust the apprehensions caused by this spectre will disappear with time. Of course all of our readers are now full of good intentions for the year, and though we tiust they well know their own deficiencies, we will nevertheless venture to suggest some more, and hope that it not all,
at least the most will be carried out. We hope our venerable trustees seriously intend to provide tor new buildings by next October, to re-establish Cramweek and the study of history, to appropriate a handsome sum for the Semi-Annual, to increase the library, to buy a new organ ; in fine

to 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to do, and to undo all those things which they ought not to have done. The President can hardly form a better intention at the

COLUMBIA UNIVERSITY®

SNS 이미지

college
look

COLUMBIA
1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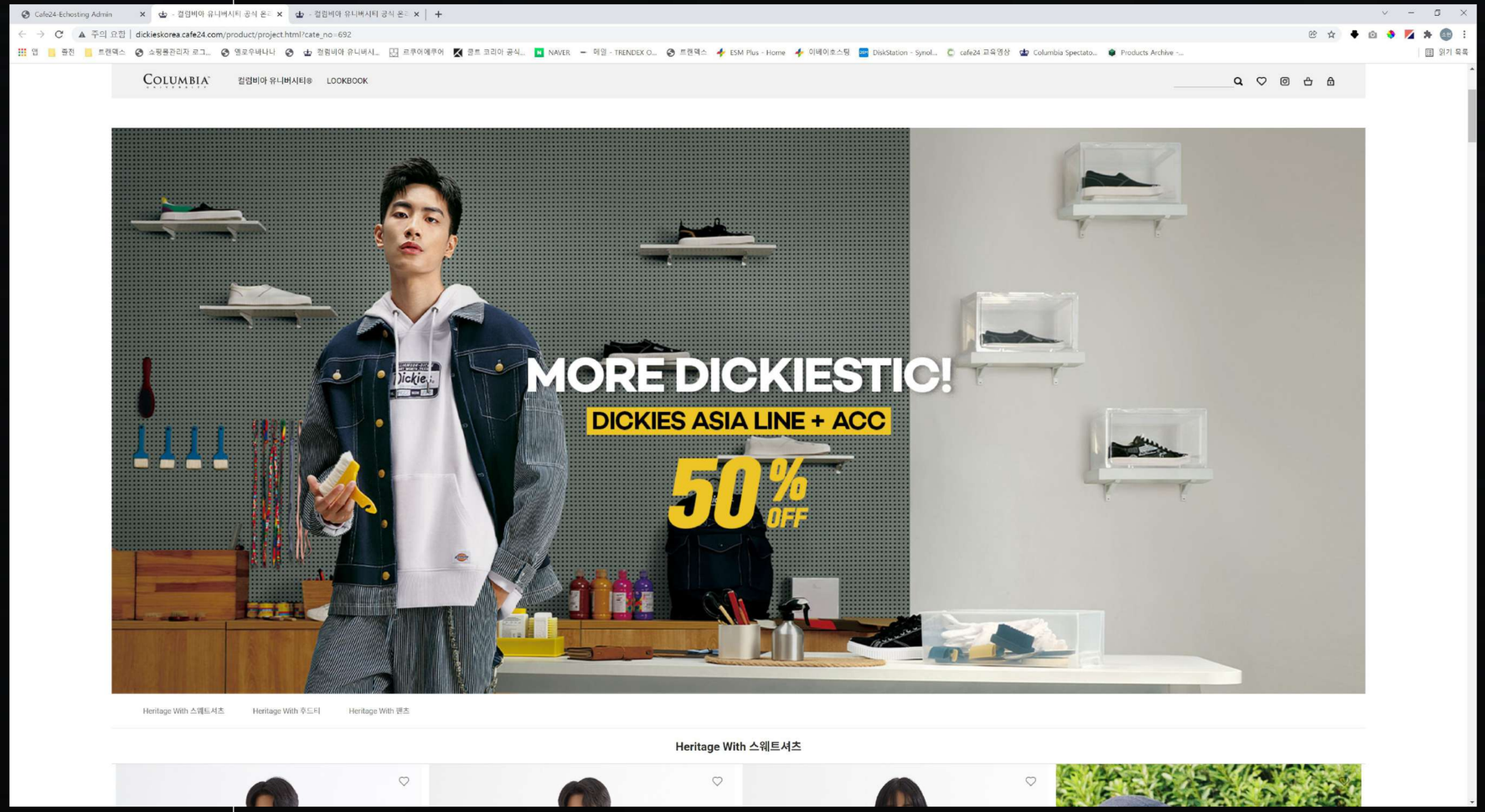
COLUMBIA
1754

GOOD BYE
2 0 2 1
EVENT
12/20 - 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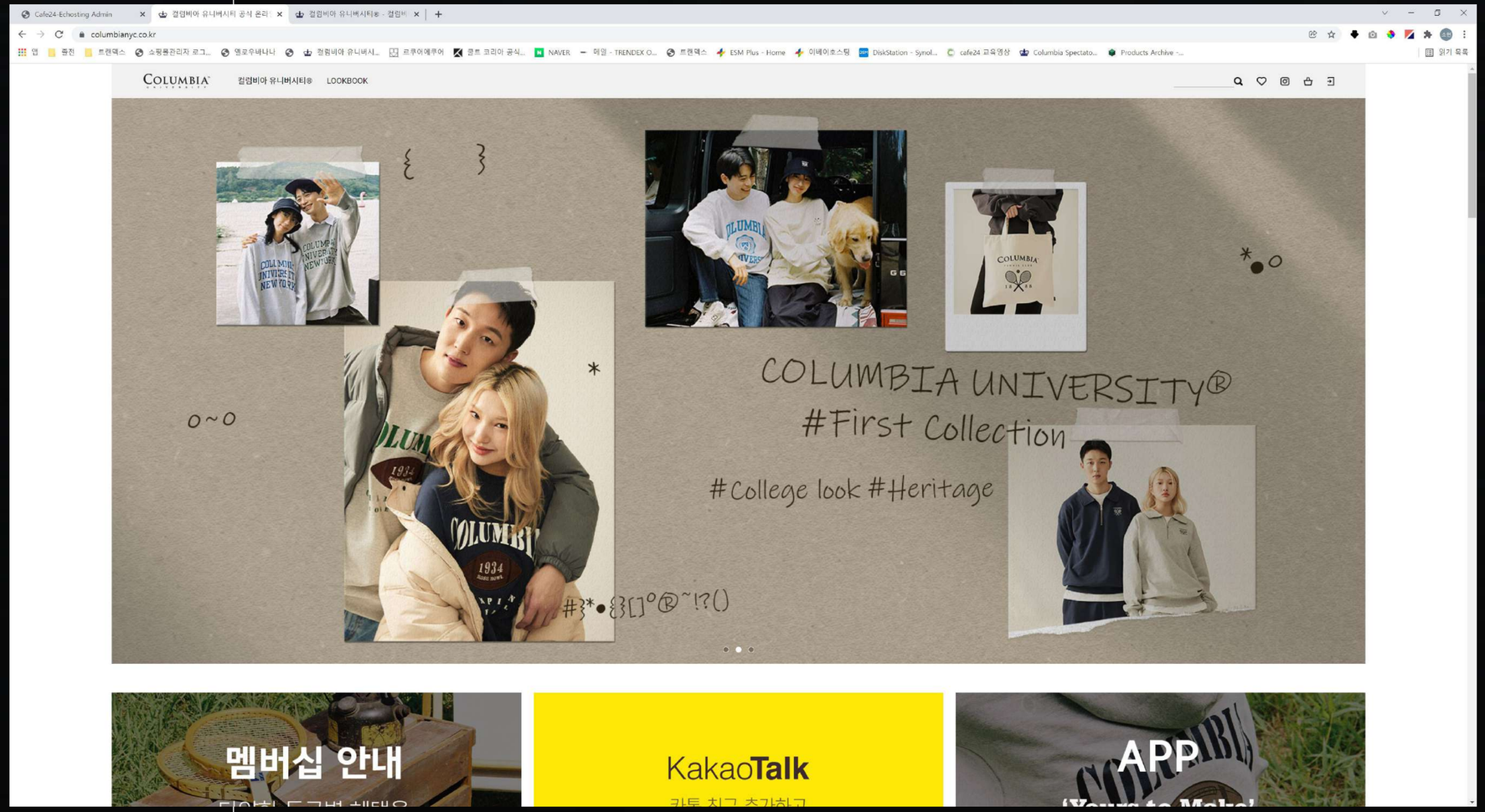
COLUMBIA
UNIVERSITY
COLUMBIA
1754
COLUMBIA
1754
COLUMBIA
1754
HERITAGE SW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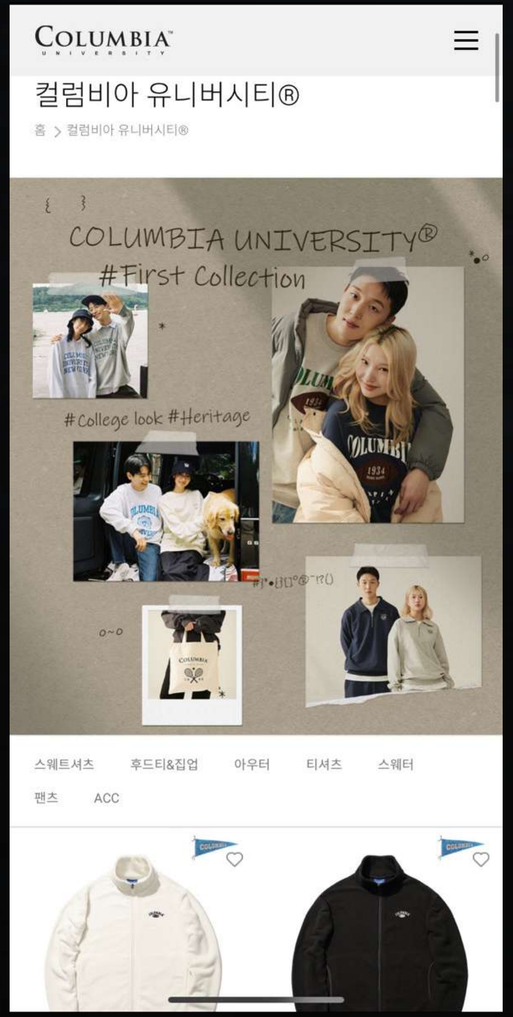
COLUMBIA
UNIVERSITY
C
C
C
UNIVERSITY C LOGO SWEATER

DICKIES® -메인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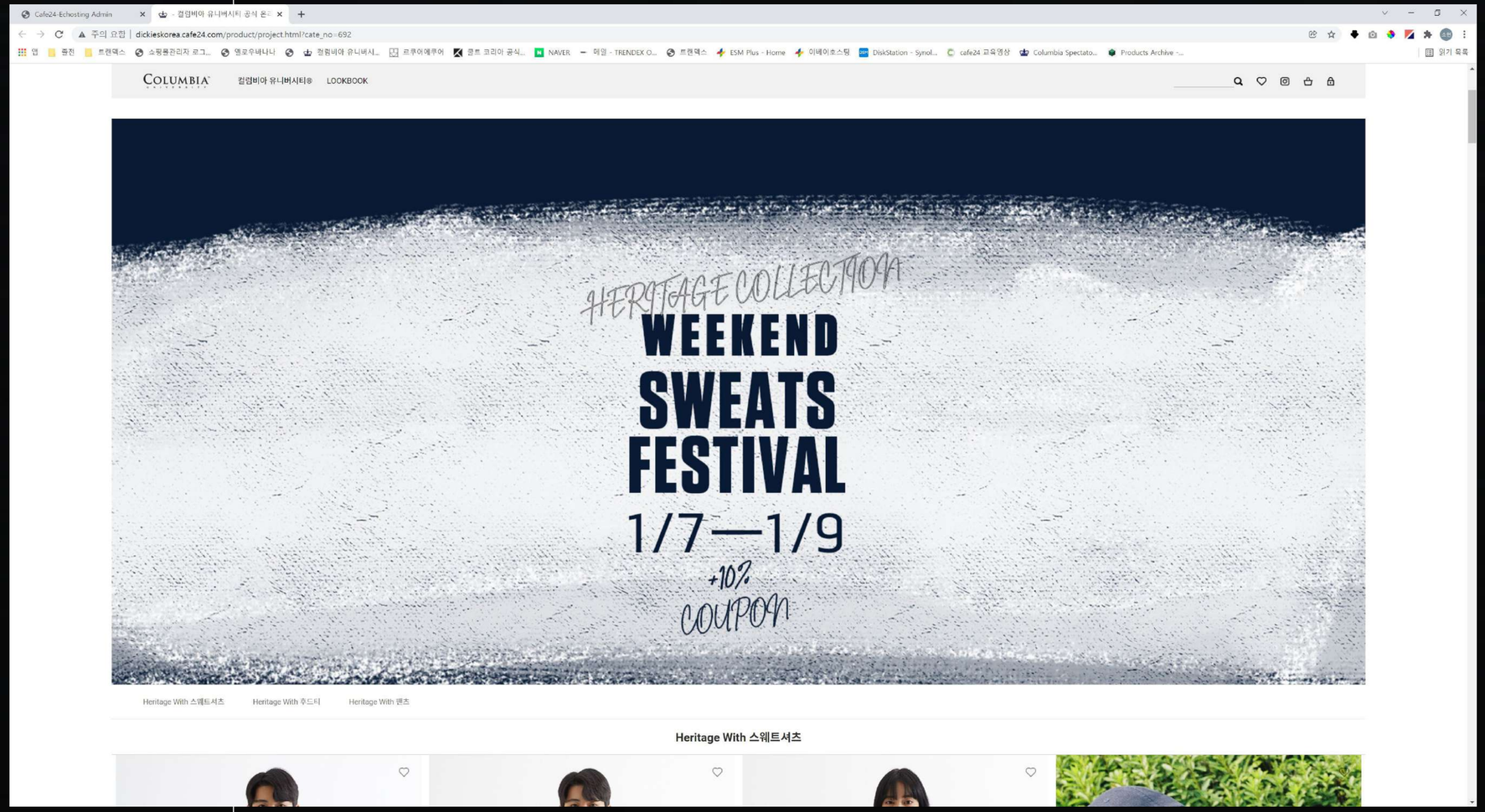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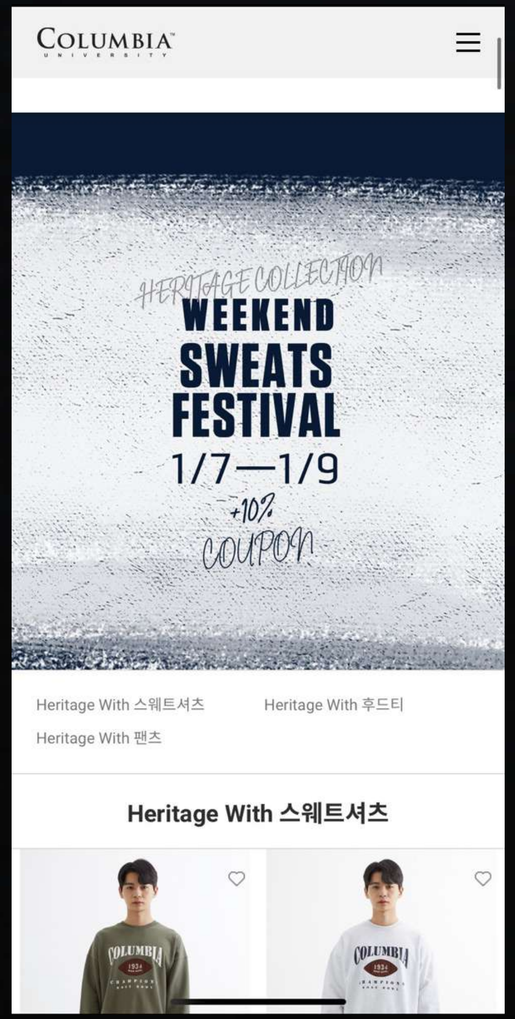
COLUMBIA UNIVERSITY® –메인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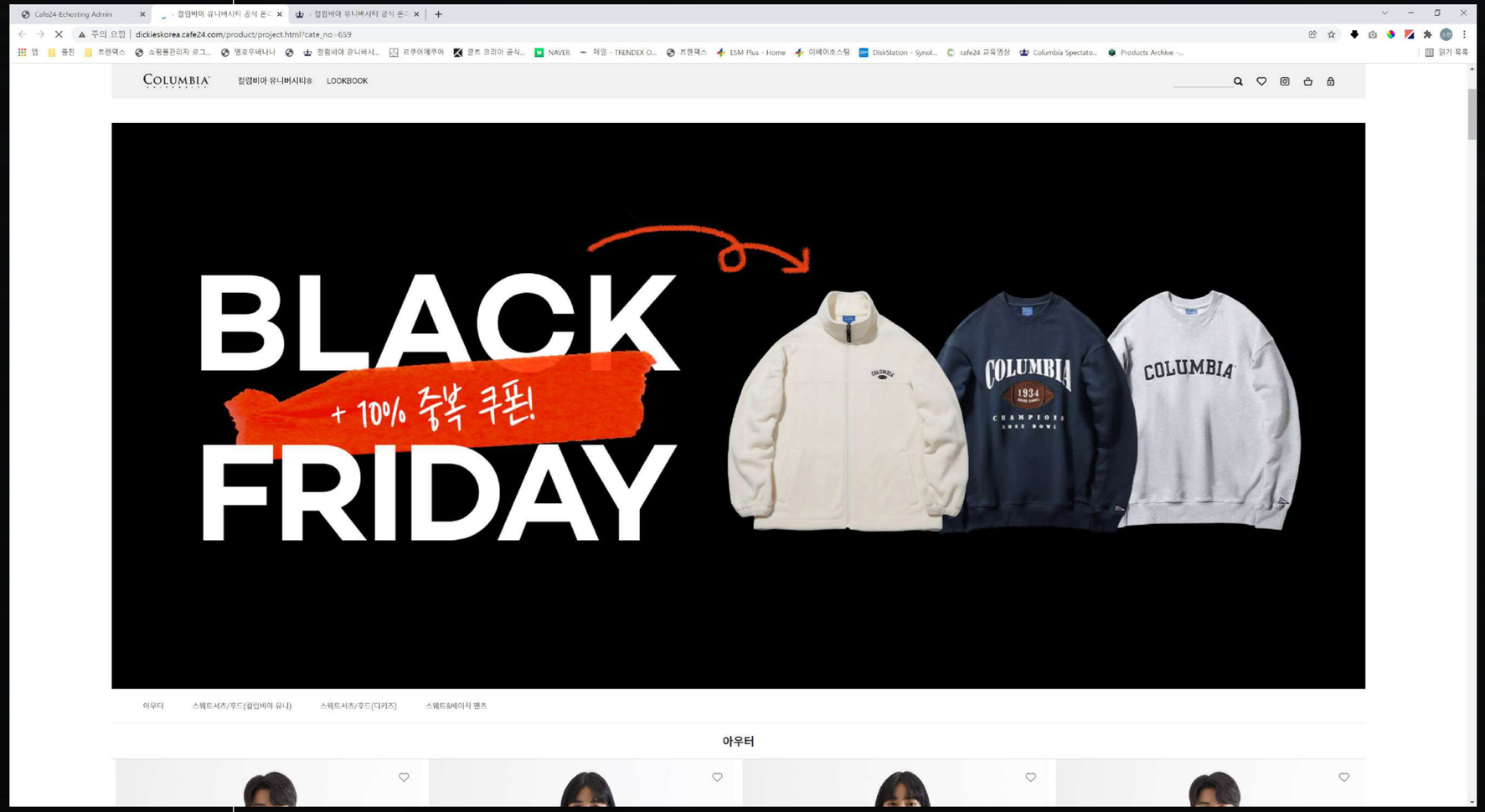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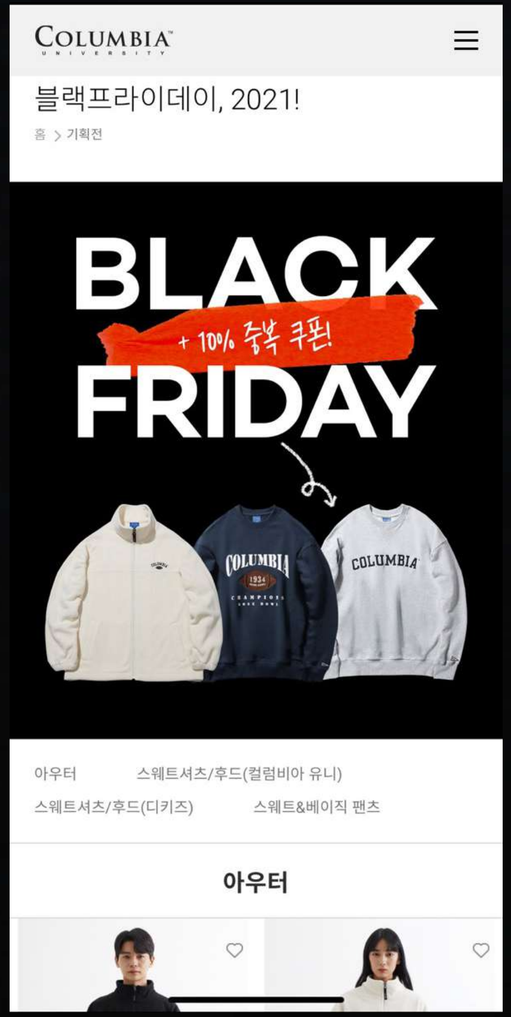
COLUMBIA UNIVERSITY® –메인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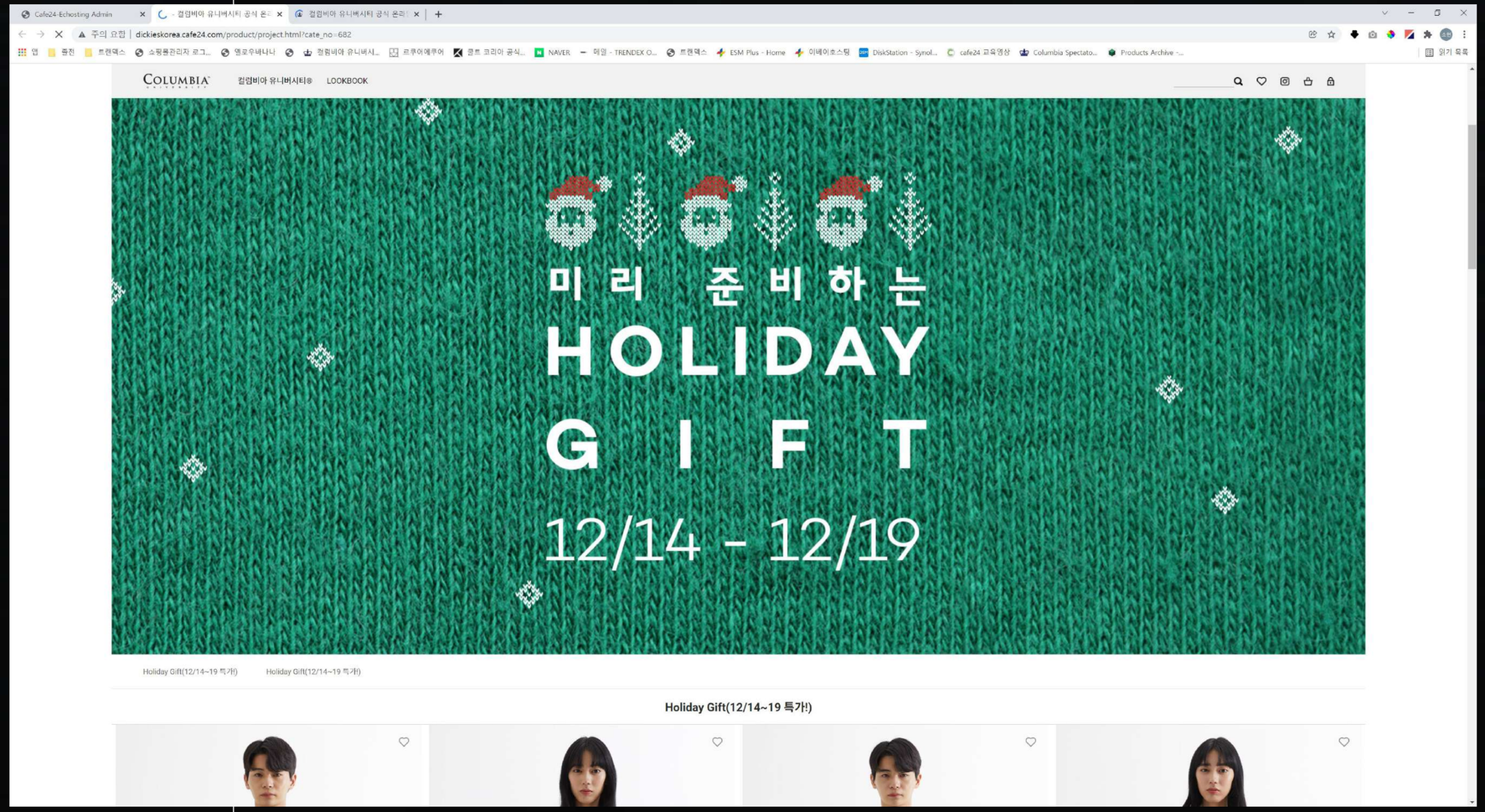


COLUMBIA UNIVERSITY® –메인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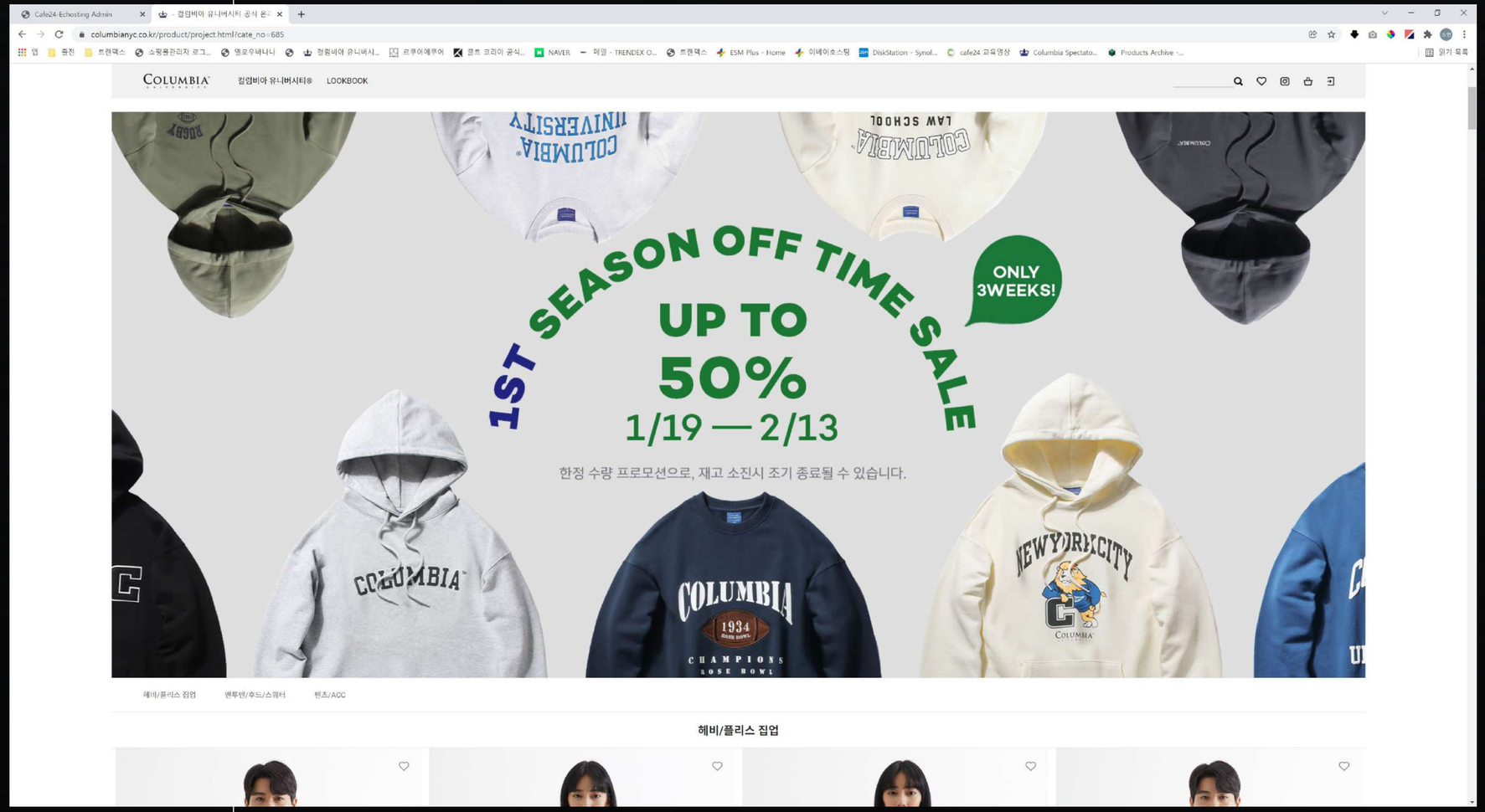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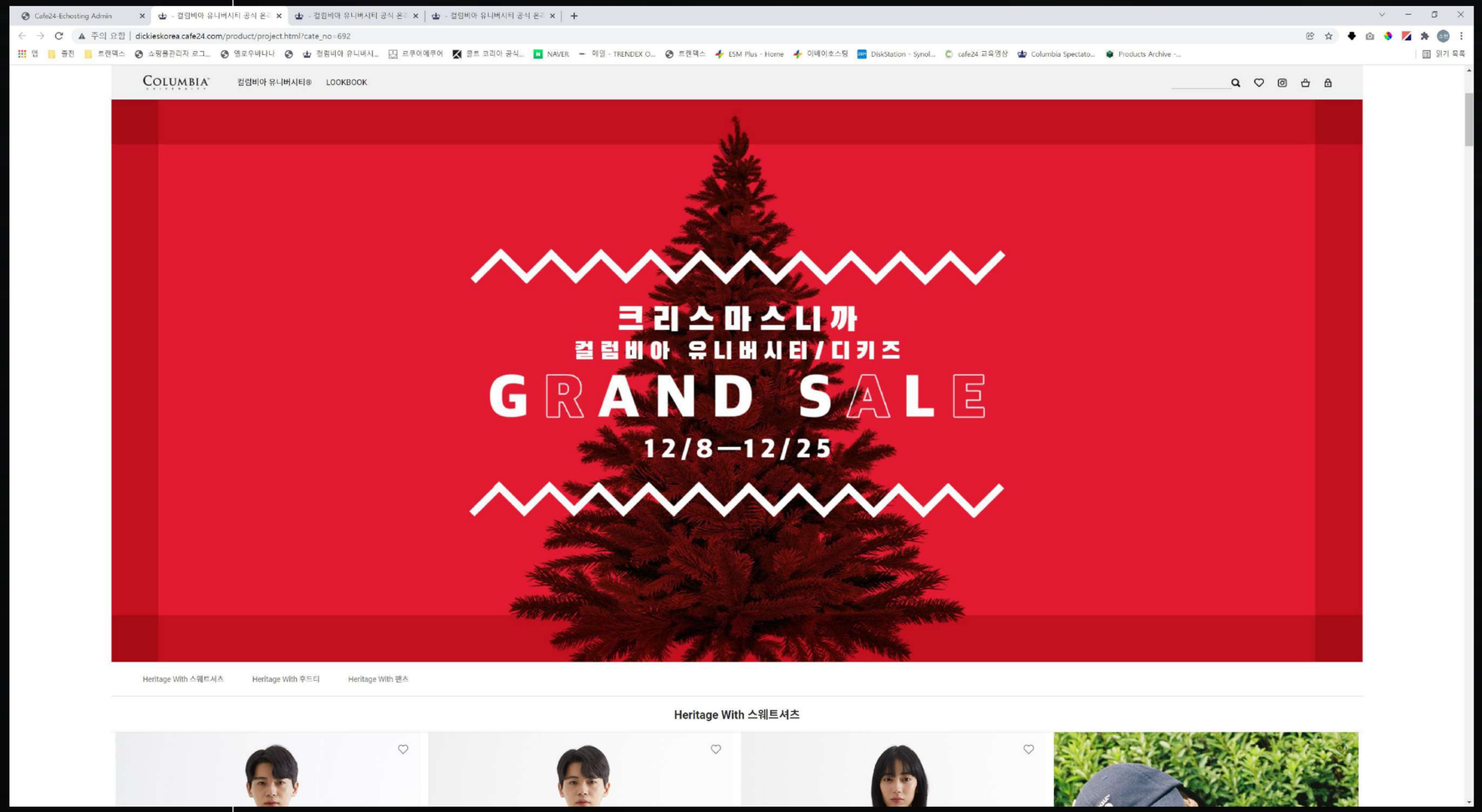




COLUMBIA UNIVERSITY® –메인배너



COLUMBIA UNIVERSITY® –메인배너



COLUMBIA UNIVERSITY® –메인배너